

Style 1 조선일보

OCTOBER 2013 vol.99



Paris
Paris Paris

Cartier

Paris Nouvelle Vague New Collection



르 리프트 크림. 스마트 크림의 스마트 피부케어

타고난 피부를 뛰어넘는 피부과학, 샤넬의 새로운 스마트 크림, 르 리프트를 소개합니다. 르 리프트는 저마다 다른 피부 환경과 필요 조건을 감지하여 스마트하고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선사합니다. 탄탄한 페이스 라인과 건강한 피부톤, 동시에 주름과 탄력 개선 효과까지... 르 리프트,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샤넬의 새로운 제안.

샤넬,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CHANEL

BURBERRY



OMEGA

www.omegawatches.com



Ω
OMEGA

SEDNA™ GOLD

No painting or photograph can do justice to a late-day sun setting in the twilight sky. The western horizon blazes with ever-changing shades of gold and red. A moment of perfect silent reflection passes all too quickly. With 18K Sedna™ gold, OMEGA has created a watch whose rose gold lustre—the result of an artful blend of gold, copper and palladium—is worthy of the most memorable sunset. This world premiere's colour will sparkle vividly when a thousand sunsets have been forgotten.

Discover more about Sedna™ alloy on
www.omegawatches.com/sedn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롯데 에비뉴엘점 02 2118 6212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Hyundai Main 2428-6888 Hyundai Car 2487-8388 Galleria East 695-3772 Avenue 218-6333 Spinnaker Spinning 2474-1762 Lanvin.com



LANVIN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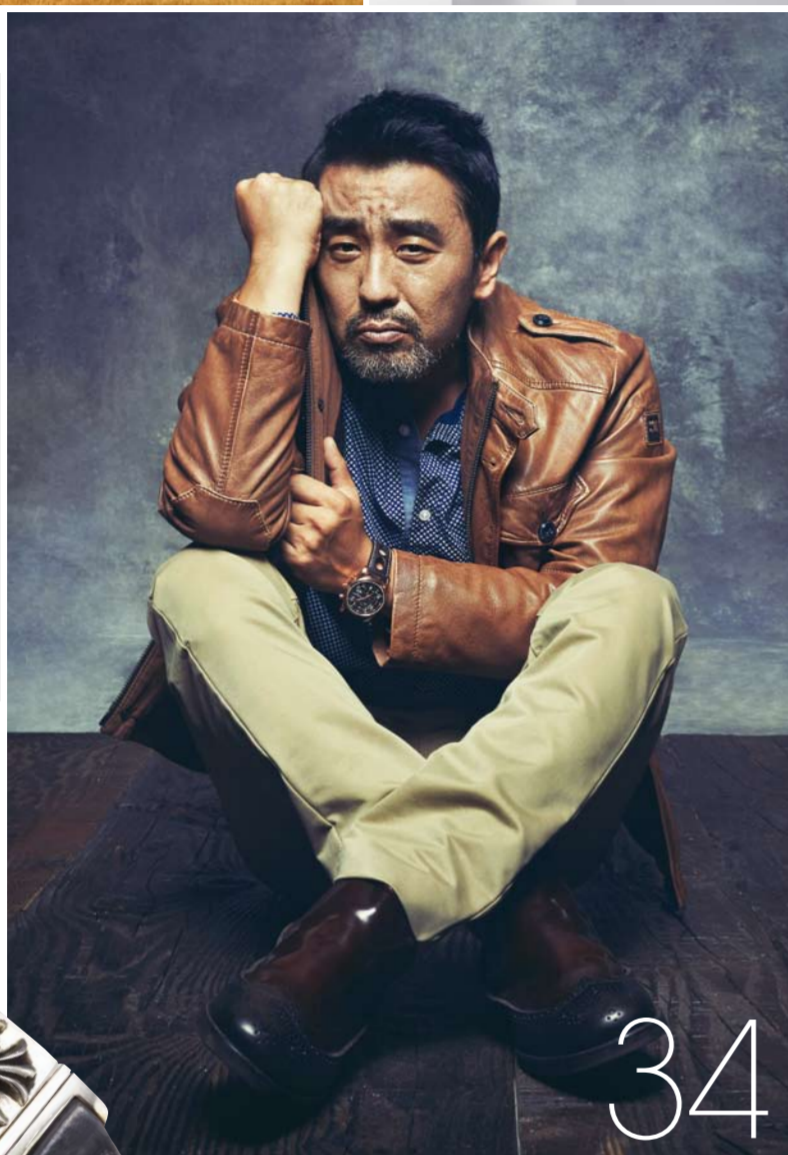
52 18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3

Paris Paris

Cartier

표지에 등장한 주인공은 파리를 연상케 하는 일곱 가지 무드를 콘셉트로 완성한 카르띠에의 누벨바그 컬렉션 링이다. 반짝임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손으로 풀리상한 작은 금빛의 원형 모티프는 움직일 때마다 강렬해지는 반짝임을 선사한다. 핑크 골드와 다이아몬드, 핑크 사파이어를 함께 세팅했다. 문의 1566-7277



34



14

- 18 **INGA SEMPÉ** 중용의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인가 생애의 디자인 세계를 일컬어 "우아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담고 있다고 표현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 22 **FALL'S NEW BAGS**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강조한 클래식한 백부터 다채로운 컬러와 프린트를 담은 트렌디한 백까지, 당신의 마음을 두흔들 이번 시즌 뉴 백이 쇼윈도를 장식했다.
- 28 **TIME TO EXPRESS** 완벽한 시계에 대한 빅 패션 하우스의 끝없는 열망은 나날이 발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위치를 탄생시켰다.
- 30 **CATCH ME!** 섬세한 주얼 장식과 강렬한 컬러, 독특한 형태의 컬러 차백은 드레시한 룩의 완성도를 높여줄 강력한 무기임에 분명하다.
- 32 **BEYOND THE BLUE** 지난 8월 홍콩에서 1백76년 역사의 티파나가 아름다운 2013년 새로운 하이 주얼리 프리뷰 전사를 개최했다. 유색 젤스톤에 웅장하고 찬란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은 티파나의 고귀한 열정이 피어난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 34 **ONE MAN SHOW** 감성 짙은 유래함, 사나워진 전들함, 달콤한 마초스러움... 대중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3년 깊어가는 가을, 새로운 룩을 통해 카메라와 교감하는 배우 류승룡의 원맨쇼.
- 42 **FINE MAKEUP** 멋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라면 그 계절에 알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갖추어야 하는 법. 카키, 브라운, 골드 등 가을을 위한 깊고 풍요로운 컬러와 메탈릭한 셰이드가 여자의 얼굴을 우아하게 물들인다.
- 43 **MY BEAUTY SECRET** 한창 주기를 올리고 있는 영화 (숨바꼭질)의 제작자 김미희 대표는 10년간 SK-II 피타라 에센스를 사용해오는 동안 그녀의 피부도, 인생도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녀가 전하는 성공한 여성의 삶과 뷰티 시크릿.
- 46 **SMART ANTI-AGING DRAMA** 단 하나의 크림으로 다섯 가지 효능을 선사하는, 자연스러운 탄력과 볼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별한 스마트 안티에이징 크림을 소개한다.
- 48 **A MIRACLE OF SKINCARE** 필로소피가 제안하는 2단계 미라클 안티에이징 시스템은 홈 케어만으로도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선사한다.
- 49 **THE ULTIMATE ROSE** 지금껏도 최고 화장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클레드보 보떼의 럭셔리 라인 시나피프에서 새로운 향수를 선보인다. 브랜드 최초의 향수이자 VIP라면 모두가 기다려왔을 만한 향수다. 궁극의 장미 향기를 담은, 로즈 시나피프 향수.
- 50 **ONE FINE HEALING DAY** 순수를 천연 성분과 재활용 용기, 환경 보존 캠페인 등 자연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코즈메틱 브랜드 아베다. 밝고 건강한 내추럴 뷰티를 추구하는 아베다는 이번 시즌 맨 케어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아우르는 새로운 얼굴로 배우 이진욱을 선정했다.
- 52 **THE WILD SENSE OF LUXURY** 많은 위함이 도사리고 있는 야생의 자연에 대한 선입견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장소가 있다. 그곳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지상 낙원일 것이다.

Style

조선일보
Issue.99 October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사법실 그래픽스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시오,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PEARLY WHITE

순결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영롱한 빛을 간직한 머티오브렐 주얼리 컬렉션.

(이웃데 유티뷰 시계 방향으로) 브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는 핑크 골드 양면에 블랙 오피스라 화이트 머티오브렐을 매치한 브라이덜릿 1천원인데 불 가리, 마베 진주와 사쿠라 골드가 만나 활짝 핀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페달 네크리스 1천2백원인데 타사키, 핑크 골드와 화이트 자개를 매치한 메디테라, 인 컬렉션 청 브레이슬릿 2천원인데 불 가리, 마베 진주와 아름다운 페달 링 액세서리 30만 원인데 타사키, 상강 기법으로 이롭게 자개 핀과 오피스 에 나츠 꽃송이를 끼워 넣은 카레즈 오가네 배르 카레즈에 이어진 2천2백원인데, 네크리스 1천2백원인데 모두 카레즈에, 에디터 베미진

Focus

로얄 살루트 폴로컵 2013, 프리미엄 스포츠와 위스키의 만남

제주도의 콘텐츠가 풍부해지고 있는 데는 이 아름다운 섬을 몸으로도 사랑했다는 제일 동보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이태미 준(1937~2011)이 남긴 건축물들이 한몫을 한다. 자연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생태적인 건축 언어로 유명한 이태미 준의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작품은 이 섬에서도 사투 외딴 곳인 구좌읍에 자리하고 있는데, 바로 2010년 6월에 개장한 한국 폴로 컨트리클럽(KFCC)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 규격 구장(가로 300m, 세로 160m)을 갖췄다는 이곳에서 자연과 호흡하며 왕실의 스포츠로 통하는 폴로(Polo)를 즐길 수 있다는 건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지난 9월 7일 이곳에서 '여왕의 위스키'라 불리는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로얄 살루트가 주최한 '2013년 로얄 살루트 폴로컵' 대회는 바로 그러한 희소성이 구현된 행사였다. 격식에 맞는 정장 차림을 한 2백여 명의 관람객들은 인태비셔널 팀과 코리아 팀으로 나누어 대결을 펼치는 선수들이 폴로 전용 말을 타고 말렛(Mallet, 마치 모양 타구봉이 달린 폴로 스틱을 흔드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면서 응원했다. 그리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의 쌀쌀한 기운을 다리와 함께 사침된 로얄 살루트를 훌쩍가리면서 달렸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선수들과 관람객 모두가 경기장으로 나와 말들이 만든 디벗(divot, 말발굽으로 파헤쳐진 잔디)을 함께 밟아 다지는 '트래딩 인드' 진행했다. 5대륙에 걸친 친토네먼트로 전개되는 국제 대회인 '로얄 살루트 월드 폴로'는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한국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경기가 끝난 뒤 열린 디너 행사에서는 '로얄 살루트 테이스팅이 백미'를 장식했다. 최소 21년 이상 숙성된 원안만을 사용한다는 '프레스티지'를 내세우며 브랜드답게 1953년 영국 여왕에게 한정된 '로얄 살루트 21년'을 비롯해 '로얄 살루트 100' 캐스크 셀렉션, 스코틀랜드 민족의 상징물인 '운명의 돌'을 부제로 한 '로얄 살루트 38년' 등 3개 완약을 전문가의 유려한 설명과 함께 선보였다. 에디터 고성연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ashion HAUTE HEELS

크리스찬 루부탱, 지미 추, 마블로 블라니. 1세대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의 비통을 이어받아 한국 시장에 뿌리내릴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를 눈여겨보다. 먼저 올 초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 열풍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은 갤러리아 명품관에 입점한 주세페 자노티(Giuseppe Zanotti). 전통적인 수공예 생산 기술에 로큰롤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과감한 디테일과 구조적인 라인업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세르지오 로시(Sergio Rossi)는 수많은 편집매장을 거쳐 '엘본 더 스타일 블랙'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슈즈를 '보디라인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적인 요소를 접목한 디테일과 이질한 스타일레토 힐이 대표적이다. 세르지오 로시의 단독 스토어를 만날 날도 머지않았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다. 장비토 로시, 르네 카오발리 등 감각적인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를 전개해 온 라 팔레시옹에서는 과감한 커팅과 조형미, 독특한 굽으로 대변되는 영국 디자이너 니콜라스 키르우드(Nicholas Kirkwood)를 비롯해 알렉산드르 비만(Alexandre Birman), 아쿠아 주라(AQUAZZURA)까지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남미 슈즈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가장 핫한 브랜드의 집결지로 꼽히는 10 고르소 꼬모에서 새롭게 들어온 이탈리아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는 왈터 스테이거(Walter Steiger). 1932년 론칭한 이후 3대에 내려오는 구두 사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을 만큼 자부심이 대단하며 활처럼 흰 예술적인 힐 라인이 트레이드 마크다. 에디터 이예진



Beauty FALLING IN LOVE WITH RED

올 가을은 레드와 향연이다. 레드와 자신 고장적인 이미지 탓에 선풍 레드 립스틱에 손이 가지 않았다면 이번 시즌엔 그 편견과 틀을 깨고 좋다. 레드 립스틱은 마치 클렘루주의 여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관능의 상징이지만, 사실 어떻게 바르고 연출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탄생하기 때문.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매끈하게 바른 레드 립은 우아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글로시한 입보이는 볼륨 있는 레드 립은 요염하고 섹시한 느낌을 준다. 반면 입술 중앙에 특출 물들이듯 바른 체리빛 레드 립은 연마 립스틱을 물레 바른 사랑스러운 플라타 같은 소녀 감성을 아우른다. 강렬한 레드 컬러는 물론 부드럽고 달콤한 레드 컬러까지, 이미지 변신의 귀재, 레드 립스틱을 소개한다. (위부터 아래로) 비비 브라운 리치 립 컬러 2 울드 할리우드' 할리우드 스타에게 영감을 받은 오자널 레드 컬러 립스틱(3.8g 3만9천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엑스타시 402 피플' 대담하고 산명한 컬러와 촉촉한 질감의 레드 립스틱(4g 3만9천원), '슈어무라 라쉬트 레드 컬렉션 몽 슈 레드 퓨어' 풋풋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스러운 핑크 레드 립스틱(3.2g 3만5천원), '디올 루즈 디올 999' 디올 최초의 레드 립스틱인 9번 세이브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클래식한 레드 컬러 립스틱(3.5g 4만원), '갈릴리 루즈 오트모디 121 루즈 데페르' 약미 유혹 같은 강렬한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립스틱(3.5g 4만5천원), '샤넬 루즈 알뤼르 99 피피프' 피부 톤을 살리는 푸른빛이 도는 레드 립스틱(3.5g 3만9천원), '방뿔 알뤼르 데지르 186 로즈 데지르' 은은한 핑을 함유한 장맛빛의 로맨틱한 핑크 레드 립스틱(4.2ml 3만9천원), 에디터 권유진

Event 현대자동차가 제안하는 체험 문화 공간, PVL The Factory

요즘 기업들에는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에 각인되어야 한다는 사명'이 절대적이다. 고객에게 반짝 '뉘이는' 느낌이 아니라 오감의 민족을 극대화시키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저마다 머리를 싸맨다. 이는 문화와 체험을 소비하는 '체험 경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과도 맞물린다. 현대자동차가 창의적인 감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PVL 브랜드를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PVL은 'Premium Unique Lifestyle'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현대차의 i30, i40,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개성을 중시하는 고객'을 겨냥한 브랜드다. 최근 선보인 문화 공간 PVL The Factory는 이러한 행보를 잘 드러낸 체험 마케팅의 정이다. 지난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진행된 'PVL The Factory'에서는 미디어 아트 디자인,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PVL이 표방하는 문화적인 가치를 자동차 기술과 맞닿는 방식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중 i40의 자동차 부품을 악기의 요소로 활용해 머물러, 서스펜션, 엔진 배관 등이 가진 고유한 소리를 음악적으로 해석한 강경덕 작가의 사운드 아트 'Sound Voyage'는 꽤 참신하다. 고객이 '내만의 이트워크'를 시도하는 체험의 장소 마련됐다. 전문적인 DJ 장비와 가차고 드라이브의 속도감과 즐거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뮤직 드라이브 스킵', '3D 맵핑' 기술을 원하는 색상과 문양을 'i30' 위에 구현해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경향' 등도 눈길을 끈다. 이 행사는 오는 12월 27일까지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이어진다. 문의 070-8236-2341 에디터 고성연

+822 3443 2323 prada.com



벨트 장식의 포켓 디테일이 돋보이는 소가죽 토트백, 40x30cm, 2백10만원대 에르메네질도 제나.



가족 차림을 살린 카드 지갑 20만원대 알렉산더 왕.



가족 고임 장식의 팔찌 36만원 오메가.

중요가족 소재의 브레이치에 실버 컬러 스티칭으로 장식한 펜스케치인원용볼펜.



가족을 부분적으로 매치한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키키 컬러 니트 각 5백88만원, 가격 미정 필립 플레인.

for him Selection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멋이 배가되는 가족은 분명 매력적인 소재임에 틀림없다. 가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 멋스러운 가족 아이템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가족으로 만든 블랙 보타이 35만원 코르시넬라베도리 by 10 포르소 코모.



블랙 베이스 가죽 장갑 20만원대.



캐주얼한 가죽 고임 벨트 22만2천원 할프 로렌 블랙 라벨.



블랙 가죽 모자 45만원 다크쇼 by 10 포르소 코모.



선명한 퍼플 컬러의 스웨이드로퍼 가죽 장갑 30만원.



바겐디 컬러의 가죽 워커 99만원 마크 제이롭스.



스타일링으로 포인트를 준 베이스 70만원대 바버리.

신뜻한 그린 컬러의 더블 스트라이프 백, 32cmx37cm, 1백57만원 토즈.



세련된 베색이 돋보이는 가죽 맨투맨 티 80만원대 닐 바넷.



타원형 장식의가 팔찌는 가죽 크롬하튼.

- 에르메네질도 제나 02-2240-6521
- 10 포르소 코모 02-3018-1010
- 할프 로렌 블랙 라벨 02-6004-0133
- 알렉산더 왕 02-3446-7729
- 오메가 02-511-5797
- 몽블랑 02-3485-6627
- 필립 플레인 02-544-9132
- 닐 바넷 02-6905-3608
- 톨 포드 02-6905-3534
- 바버리 02-3485-6536
- 토즈 02-3438-6008
- 크롬하튼 02-3443-0055
- 마크 제이롭스 02-545-5981

TOD'S KOREA INC. 02 3448 8201



TODS.COM



가죽 프레임이 혁신적인 선글라스
39,800원부터 시작되어.

니트와 가죽이
조화를 이룬 세련
장갑 가격 미정 사넬.

해골 장식이 유니크한 바디 걸리 장지갑 1백10만원대. 토마스 와일드 by 주느세라.

심플한 메탈 장식의 가죽
필라 각 48만원 생로랑.

선명한 푸르시아
핑크 컬러의
양가죽 재킷
8백95만원 발랑.

체인 스트랩과 로고 버클이
돋보이는 비 비게트 백,
26.5cm×15.5cm,
3백90만원 펜디.

for her Selection

디자이너들이 F/W 시즌에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소재는 바로 가죽이다. 바이커 재킷뿐만 아니라 롱 코트, 스커트, 톱까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천의 얼굴을 가진 가죽 아이템,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여성스럽고 단아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탱크 아메리칸
워치 1천5백만원대
까르띠에.

동물 코르크의 가죽
미모자 48만원 로베.

플라워 스타일
장식의 메리제인
슈즈 59만원
레드 발렌티노.

와일드한 뱀가죽 소재의 벨트 49만원
올채앤가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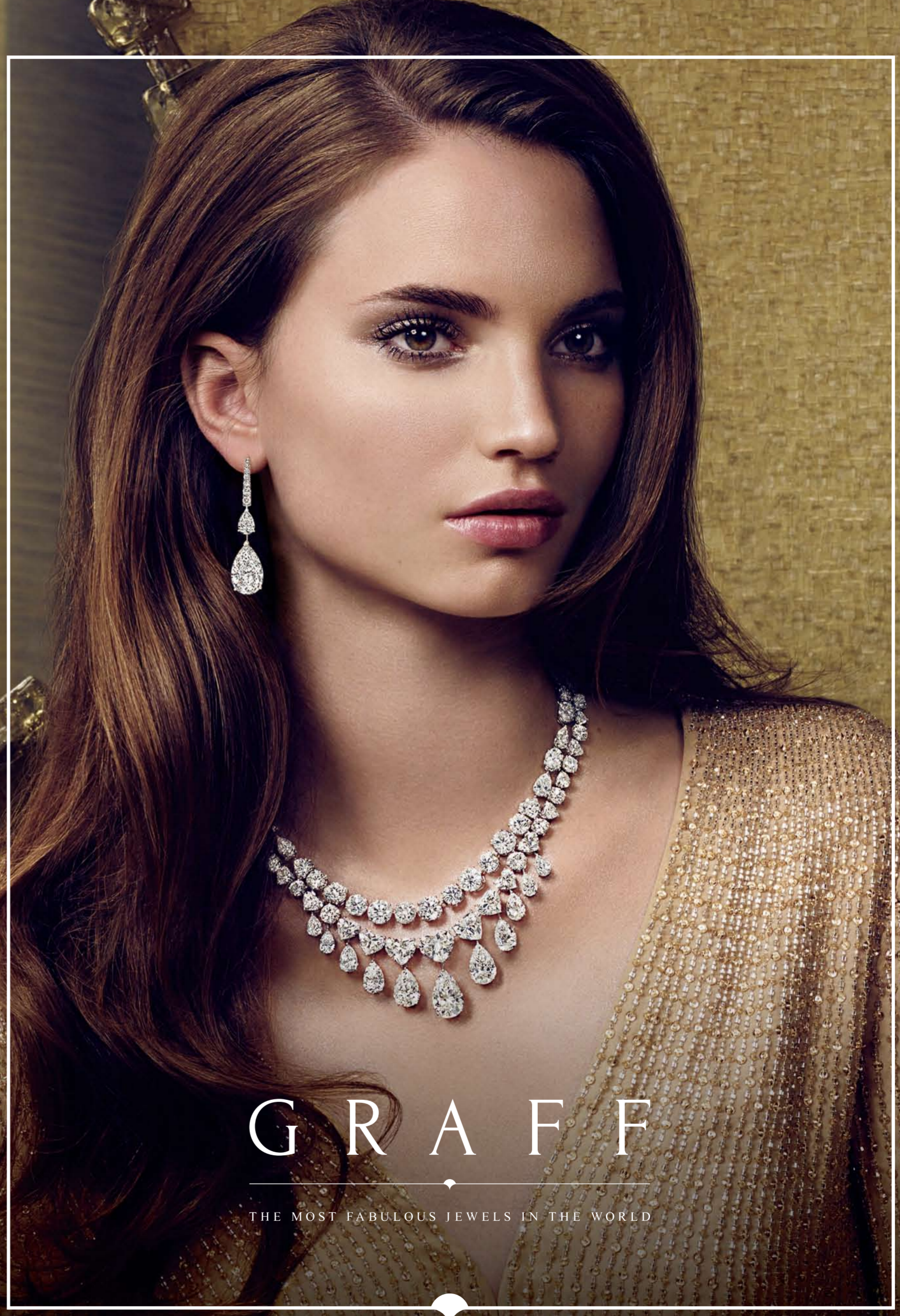
베이스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토트백,
34×37cm, 가격 미정
고아드.

벨트 장식이 멋스러운
부티 가격 미정
발로 로렌 갈렉산.

핸드 메이드인 영국으로 손수
제작된 크리크 가죽 미모자
비버리 프로션.

평범한 스트리트 장식의 카드 지갑 3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 생로랑 02-547-5741
- 사넬 02-543-8700
- 발랑 02-6905-3585
- 주느세라 02-515-3151
- 로에메 02-3445-8864
- 파치오티 02-545-8757
- 펜디 02-2056-9022
- 고아드 02-3448-4778
- 까르띠에 1566-7277
- 레드 발렌티노 02-6905-3996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올채앤가버나 02-3444-0077
- 발로 로렌 갈렉산 02-6004-0133
- 비버리 프로션 02-3485-6536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재능을 살리는 여자들의 이유 있는 성공담

이 시대 최고의 키워드 중 하나인 '창의성'을 둘러싼 이론은 다양하지만 타고난 창조적 자아가 일에 대한 꾸준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시대와 주변의 조력자들을 만나야 비로소 만개할 수 있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소프트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재능을 키울 줄 알기에 행복한 그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앞뒤 문을 열어 물건을
잡아넣을 수 있고, 위로
쌓아 올릴 수도 있어 유용한
다용도 수납장, Armoire
Souplet(Moustache, 2009).

“알파우먼들이 CEO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알파맨과 결혼하고 마는 지명적인 실수를 공통적으로 저지르기 때문이다.”

수년 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유명 칼럼니스트 루시 켈러웨이는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글을 실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처음에는 탄탄대로를 걷다가도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건 자녀가 많아서가 아니라(구미 지역의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들을 보면 의외로 자녀를 많이 두고 있다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아내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훨씬 더 중시하는 알파맨(실력을 갖춘 데다 야심도 큰 '능력자들 의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담았다. 당시 FT의 '세계 파워 우먼 50인' 명단을 보면 대부분 가족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조력자 역할을 맡는 소위 '베타맨'을 남편으로 둔 여성 리더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필자가 오래전에 읽은 독일 학자 잉에 슈테판의 저서 <재능 있는 여자의 운명>을 되짚어보게 한다(지금도 <천재를 키운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된 상태).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마르크스, 헤르만 헤세 등 창조적 거장의 아내로서, 젊은 시절에는 남편 못지않게 출중한 재능을 드러냈지만 계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들러리 인생'을 살면서 괴로워했던(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공을 세우고도 배우자의 그늘에 철저히 가려지기도 한) 여성들의 얘기를 담은 책이다.

솔직히 이 책의 주인공들이 실제와는 반대로 창의적인 재능의 날개를 실컷 펼쳤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그들의 남편에 버금가는, 혹은 그 업적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반드시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성과를 내야만 행복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지 않을까.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하이 칩센트미하이 박사가 말했다시피 창의성이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완전한 구현이라고 보았을 때, 이들은 (자미디의 주변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의 끼와 열정이 향하는 분야를 발전했음에도 사회적 제약과 주변의 압박에 둘러싸여 '자아실현'을 향해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이니 말이다. 재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모를까,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데도 '물려야 하는' 느낌은 헛헛함과 패배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작금의 '알파 논리'로 해석하면 베타맨의 남성상은 그 비슷한 개념조차도 존재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불꽃 튀는 알파우먼과 알파맨의 성향을 지닌 남녀의 만남이었던 셈이다. 사실 요즘은 능력녀, 능력남을 배우자로 둘 수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베타맨, 베타우먼이 될 용의가 있다며 서로 '밀어주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닌단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특히 창의적인 일의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뻗어나가기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평생에 걸쳐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하버드대의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이러한 현실의 불균형에 대한 답의 단초를 제시했다. 그는 심리학과 생물학의 연구를 토대로 볼 때 뛰어난 '창의적 혁신'은 대개 성인기(adulthood)의 전반부에 이뤄질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창 일에 매진할 때가 여성이 육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물론 부분적인 원인을 따지자면 베타맨을 짝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누가 뭐래도 알파맨만 원하는 알파우먼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다. 혹은 잠재적인 베타맨의 성향을 지녔는데도 사회의 편견 어린 눈총이 따기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남성이 은근히 많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잉에 슈테판의 저서에 등장하는 비운의 여인들과는 달리 '재능이 있기에 행복한 여성'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중엔 '솔로 맘(mom)'부터 아이를 몸소 지켜보고 싶어서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양육과 작업을 병행하는 열혈 엄마, 최고의 베타맨과 더불어 일과 가정을 꾸려가는 이, 그리고 거칠 것 없이 사는 자유로운 영혼도 있다. 저마다 자라온 배경도, 타고난 분위기와 성향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창조 영역에서는 확실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그녀들의 또 다른 교집합은 운명을 탓하지 않고 의연히 걸어가는 자세일 것이다. 일과 가정, 성공에 대한 경합담을 담은 베스트셀러 <린 인(Lean In)>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세릴 샌드버그 최고 운영 책임자(COO)가 강조하는 메시지처럼 마냥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도전하는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이들의 행보는 유연하면서도 강건하다.

The Women Who Inspire Us *interview 01*

Inga Sempé

은은한 분위기에 간접적인 '한방'을 살짝 곁들인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기능 고다에 힘들지 않는 편안함. 중용의 미덕을 다룰 줄 아는 잉가 상페의 디자인 세계를 일컬어 “우아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담고 있다”고 표현한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물을 보고는 '이걸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군까' 상상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경험일 것이다. 그런데 우연한 다른 계기로 그 물건을 디자인한 주인공을 직접 만나 영감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참 기분 좋은 선행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저 멀리 대서양 건너 편에서 말이다. 그 정체 모를 작품을 처음 마주한 건 2008년 봄, '동양의 베니스로 일컬어지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상대한 코냐 파티. 프랑스 코냐 브랜드 헤네시(Hennessy)의 최상급 코냐인 '리처드 헤네시 론칭 행사였는데, 유려하면서도 견고한 선의 흐름이 인상적인 우아한 크리스털 코냐 병의 자태부터 참석자들의 눈을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디자인자가 누구냐고 묻자, '아마도 프랑스 사람일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수년이 흘러 파리에서 그 격조 높은 크리스털 작품의 주인공을 만났다(사실 그 코냐 보틀은 그녀의 이력에서 아주 작은 부분 불과하긴 했지만). 잉가 상페(Inga Sempé)라는 북유럽식 이름과 프랑스 성의 소유자인 40대 중반의 디자이너. 그녀는 파리에서 태어났지만 이탈리아,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을 섭렵하며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채워가고 있는 꽤나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에드라(Edra), 카펠리니(Cappellini), 루체플란(Luceplan), 알레시(Alessi) 등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들을 위시해 미국의 컨템퍼러리 조명 브랜드 아르테크니카, 스웨덴의 대표적인 인테리어 브랜드인 스펀스크 텐(Svenskt Tenn)처럼 각국의 내로라하는 스타일 아이콘과도 일하지만 북유럽 조명업계에서 떠오르는 별인 베스트베르그(Wästberg), 코르크를 활용한 실용적인 디자인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마테리아(Materia) 등 도전적이고 참신한 브랜드들과의 작업을 즐기는 그녀의 폭넓은 활동 영역을 보노라면 '열려 있는' 자세가 느껴진다.

수줍은 소녀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자이너로 성장하다

사실 잉가 상페는 까다롭게 보일 정도로 내향적이고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말수도 적다. 하지만 직설적이다. 세상사에 시시콜콜 관심의 촉수를 뻗치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 몰두하는 게 천성적으로 편한 유형인 듯하다. '내 일을 해야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탓에 2000년, 서른두 살이 돼서야 자신의 이름을 내건 스튜디오를 설립했다. 뭐, 그렇게까지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후회했다고 한다. “솔직히 처음부터 나 자신의 브랜드에 도전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하는 바였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부족했죠. 그래도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하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려면 제작 과정을 숙속들이 파악해야 하니까요.” 데뷔 전에 그녀는 산업 디자인계의 거장 마크 뉴슨(Marc Newson),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았던 앙드레 푸망(André Putman) 밑에서 일을 배우며 기초를 탄탄히 쌓았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는 그에 해당하는 걸림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해지(結者解)라 했듯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자신의 몫일 테고 말이다. 그녀 역시 난제를 맞닥뜨렸다. 스튜디오를 열었지만 뭔가 답답했던지 이듬해 2001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재능 있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선정해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VIA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로마로 건너갔는데, 당시 디자인의 요소로서 주름(pleating)과 솔(brush)에 대한 프로젝트에 몰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름을 활용한 합성섬유 소재의 커다란 조명 등을 만들었는데, VIA에서 지원한 전시회에서 이 램프의 프로토타입을 본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거장이자 매의 선구안으로 유명한 줄리오 카펠리니가 관심을 보였다. 여기까진 좋았다. 하지만 굵은 주름을 잡아 2m에 가까운 완제품으로 만들어낼 방법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카펠리니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정말 기뻐했지만, 주름에 대해서는 별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누비며 주름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왔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뒤에야 카펠리니 브랜드로 시장에 선보일 수 있었죠.”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용기를 발휘해 잇따라 뉴아텐 인생의 기회들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이었던 '브러시'는 본인으로서도 자못 용감한 시도를 감행해 기회를 낚아챈 계기로 작용했다. 그녀는 브러시를 활용한 자신의 아이디어가 원초적이고 전위적인 감성으로 잘 알려진 가구 브랜드 에드라와 잘 맞다고 생각했다. 물론 정식 데뷔도 하지 못한 핏방아리 디자이너에게 에드라는 손쉽게 넘볼 수 없는 벽이었다. 그러다 한 전시회에서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인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티나 모로치의 연락처를 물어봤다. “당시 극도로 부끄러움이 많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용기를 낸 셈이었어요. 사실 마사모는 처음엔 제 작품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을 바꿔 연락을 해왔지요. 이때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브러시를 구현해줄 전문가를 찾느라 참 고생했죠(웃음).”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브로



1 자신이 만든 금속성 의자를 기다리고 있는 잉가 상페(Inga Sempé). Photo Credit: Filloux & Filloux 2 물에 강하고 잘 빛아지지도 않는 기능성 종이 램프인 타이브(Tyvek) 소재의 조명(Moustache, 2013). 주름 무늬를 넣은 울주머니처럼 부풀린 모양과 은은한 색감의 조화가 돋보인다. 3 별다른 공구 없이도 벽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너도밤나무 소재의 작고 동그란 선반, Balcon(Moustache, 2011). 4 미국 조명 브랜드 아르테크니카와 함께 선보인 조명, Double Stray(2008). 빛감 방지 기구 처리가 된 종이와 금속 소재 조명으로, 납작하게 접을 수 있어 디스플레이 실용성을 겸비했다. 5, 6 월트 노르를 이롭게 살린 루체(Ruche) 시리즈. 장엄함을 위해 빛가늘 수 있는 페브릭 소재의 창대, 자연이 남기는 너도밤나무를 배제로 사용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라네 로제(Ligne Roset)의 긴판 재떨이, 다양한 천 소재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료 제공: 잉가 상페 스튜디오(www.ingasempé.it)

스 컨테이너(Brosse Containers, 2003), 윤기 나는 긴 솔이 커튼처럼 드리운 디자인이 인상적인 장식장이다. 이를 계기로 30대 중반에 디자인계에 두각을 나타낸 앙가 샹페는 파리 시에서 디자인 상을 받아 장식미술관에서 소규모 개인전을 개최하는 영예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 뒤의 활동은 그녀답게 차분하면서도 왕성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리네 로제(Ligne Roset)와의 만남은 그녀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은근하게 강단이 느껴지는 디자인 언어를 발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세련된 타원형의 탁자 중앙에 장착한 동그란 고리를 활용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루나티크 테이블(Lunatique Table, 2006)', 그녀에게 확고한 명성을 안겨준 '루세(Ruché)' 소파와 침대 시리즈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쿨트 느낌이 나는 패브릭 소재인 루세 시리즈는 편안한 소재와 은은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색깔의 감각적인 배합이 돋보인다. 조명으로 출발한 그녀답게 잇따라 선보이는 다양한 램프도 눈길을 끈다. 카펠리니와의 협업에서 활용했던 주름 디자인을 진화시켜나 가면서 물주머니나 조개 모양의 풍선을 연상케 하는 부드러운 느낌의 '증기 시리즈(Colored Vapeur Lamps)'를 프랑스의 신성 브랜드 머스타시(Moustache)와 함께 내놓았고, 버섯 모양의 귀여운 디자인에 알루미늄 소재를 채용한 'w103' 시리즈(Wästberg)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탁상 램프로 시작한 w103 조명 시리즈는 최근엔 단독으로도 쓸 수 있지만 작은 레일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제품을 예쁘게 연결할 수 있는 펜던트 조명(천장에서 늘어뜨리는)으로 이어지는 등 하나의 컬렉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급자리아자 직업장, 그리고 양육의 전당이기도 한 스튜디오

이렇듯 줄기차게 달려온 커리어 여정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이자 자택에서 두 아이를 길러냈다. 역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과의 사이에 거의 열 살 터울이 지는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데, 다섯 살짜리 딸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작업실 옆방에서 퐁퐁 거리며 놀다가 가끔 엄마를 찾는 다다른 가정의 아이 2명을 돌보게 하는 '보모 공유(nanny sharing)' 시스템을 활용해 딸과 딸의 친구가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작업에 방해를 받기도 하지만(실제로 이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인터뷰 중에도 달려와 인사를 했다) 집을 스튜디오로 삼으면 절약이 될 뿐 아니라 아이를 가까이 둘 수 있기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집안일에 성심껏 임하는 든든한 남편도 있다. "우리는 서로 조력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 배우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육아와 가사 문제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와 함께 살려면 왜 결혼을 할까요? 여성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녀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여성'의 의지와 자유에 대한 문제에는 강경하다. 화가이자 동화 삽화가로 활동하며 딸에게 많은 영감을 준 모친의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녀가 젊은 시절 자주 받았고, 또 무척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던 질문은 몹시도 유명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의 생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통하는 <꼬마 니콜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팬을 거느린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장 자크 샹페.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양가는 성장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파리에서 자랐지만 원래 덴마크 혈통인 어머니 메트 이베르(Mette Ivers)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도 메트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아들 이름도 스칸디나비아풍인 코르벨리우스라 지었다. 그녀는 딱히 창조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누구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단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마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저는 스케치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제 아이디어의 원천은 드로잉이에요. 하지만 제 이복 남동생 같은 경우엔 그림에 영 재능이 없었죠. 어차피 부모님은 그러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만 보셨죠."

소년적인 맥가이버 성향이 농후한 그녀의 흥미로운 도전

그녀는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예술가를 꿈꾼 적은 없다. "예술 작품 구경보다는 바퀴나 스크루를 만지작거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디자인도 좀 더 일상적이고 소탈한 물건을 선호해요. 이틀이면 소품, 문구류, 나무 화덕 같은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필자가 들고 있던 손바닥 세 뼉만 한 앙증맞은 필기 노트와 얇은 휴대폰을 포착하더니 요모조모 뜯어보며 감탄하기도 했다. 이제는 점차 이 같은 '소년적인 맥가이버' 성향을 좀 더 반영한 프로젝트에 주력하려고 노력한다는 그녀의 결심이 반영된 흥미로운 결실이 있다. 2년 전쯤 프랑스의 가전 기기 업체인 르그랑(Legrand)이 무대 디자인을 의뢰하자 앙가 샹페는 전기 소켓과 스위치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반아들이겠다고 역 제안했고, 소켓의 두 구멍을 왜지 코치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부조 작품같이 '돌을새김'으로 처리한 프로토타입을 비롯해 참신한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별다른 공구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벽에 부착시킬 수 있는 작은 선반이나 간단한 소품을 다루는 프랑스의 리빙 브랜드 머스타시의 작품 활동을 상당히 흡족해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10대에 가장 즐겨 찾던 곳은 온갖 신기한 오브제로 가득 찬 버럭시장이었다는 그녀의 고백(?)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SI** 에디터 고성연(마리 현지 취재)



1 침대로도, 소파로도 사용할 수 있는 Sofa Enveloppé(Helle, 2009). 편안한 매트 위에 얇은 긴 쿠션의 앞 끝자락으로 아가를 감쌀 수도 있고, 소파 모양으로 거치러 놓을 수도 있는 등의 유연성이 특징이다. 2 앙가 샹페가 어릴 시절 뛰어놀았던 파리 확산부르 정원의 휴지통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테이블, LaChapelle(David Design, 2006). 3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작은 레일을 활용하면 여러 개를 연결해 다채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LED 펜던트 조명 w103(Legrand, 2012). 4 숫자를 가리키는 시계바늘 끝 부분의 색상을 강조하고, 6시 방향의 공간에 맞닿아있는 틈을 내 마무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벽시계, Guichet(Moustache, 2009). 5 전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에 밀착되고, 코드를 꽂을 때는 구멍을 살짝 가려주는 감각적인 소켓 디자인 시리즈의 사례들(Legrand, 2012). 6 앙가 샹페가 디자인한 루나티크 테이블(Ligne Roset, 2006)에서 그림을 그려며 놓고 있는 앙가 샹페의 딸(왼쪽). 41cm에서 60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 편리하다.



Fall's new bags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강조한 클래식한 백부터 다채로운 컬러와 프린트를 담은 트렌디한 백까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이번 시즌 뉴 백이 쇼윈도를 점령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토즈 셀라백 숄더에서 영감을 받아 밑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라인과 낚시로 만든 링, 밑의 관철을 연상시키는 메탈 디테일, 핸드 스틱을 강조했다. 솔리드 컬러의 심플한 소가죽부터 애플 프린트를 입은 송치 소재까지 다양한 프린트와 소재로 선보인다. 39.5x26cm 3백11만원. 문의 02-3438-6008



다올 바백 다올의 상징적인 바(Bar) 재킷의 실루엣에서 모티브를 따온 바 백은 7형 양옆의 메탈 마그네틱으로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어 두 가지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로즈 핑크, 오렌지 등 상큼한 컬러를 비롯해 네이비, 블랙 등 베이시한 컬러로도 출시한다. 25x39cm 6백만원대. 문의 02-513-3232



발레스트라 이시스 트라클러나 정제된 라인과 고급스러운 컬러, 심플한 메탈 장식이 돋보이는 이시스 컬렉션의 뉴 백. 미니멀한 형태에 탈착 가능한 숄더 스트랩을 더해 실용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23x18cm 2백98만원. 문의 02-3438-6196



프라이드 자이드 바쉬 비텔로 백 이번 시즌을 강타한 체크 패턴이 눈에 띄는 비텔로 백.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울 소재와 세련된 컬러 매치, 볼링 백 형태로 변태시킨 느낌을 강조했다. 44x33cm 2백만원대. 문의 3218-5331



MCM 마블렌 백 마블레네 디트리히의 이름에서 유래한 마블렌 라인은 모던하게 재해석한 사철 백 형태로, 톤 다운된 고급스러운 컬러와 붓 터치 프린트, 피아몬드를 감각적으로 매치해 수공예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37x28cm 1백90만원대. 문의 02-540-1404



비버리 크리시 백 핸드백을 자연스럽게 옮겨잡거나 반헤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크리시 백. 송차와 카프 레더 소재의 메치와 자물쇠 장식, 위트 있는 하트 프린트가 특징이다. 27x23cm 1백95만원. 문의 02-3486-6683



코치 메디슨 플립 사철 백 브랜드의 대표작인 메디슨 라인을 스크래치와 오엽에 강한 시미아노 소재로 견고하게 재탄생시켰다. 정제된 형태와 심플한 메탈 장식이 돋보인다. 30x26cm 97만원5천원. 문의 02-6911-0744



에르메스 콩스탕스 카티볼 백 지난 시즌 미니 사이즈로 선보인 콩스탕스 백이 사이즈를 키우고 견고함을 더해 새롭게 선보인다.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스트랩이 짧아졌고, H로고로 표현한 장금 장식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29x23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골로에 베일리 백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유연한 형태가 특징인 베일리 백은 세련된 컬러 매치와 넉넉한 사이즈, 지퍼에 체인을 연결한 골드 메탈 장식이 특징이다. 36x28cm 2백98만원. 문의 02-518-3012



Eniko Mihalik A fashion model

MAISON LEBEIGE HANNAM FLAGSHIP STORE 02.796.5666
 HYUNDAI main 02.3438.6212 / coex 02.3467.8593 / mokdong 02.2163.1340 / cheonho 02.2225.7424 / pusan 051.667.0429 / jungdong 032.623.2231 / daegu 053.245.2436 / ulsan 052.228.0426 / kintex 031.822.3221 / chungcheong 043.909.4306 / SHINSEGAE main 02.310.1944 / youngdeungpo 02.2639.4307 / pusan centum city 051.745.2539 / gyeonggi 031.695.2219 / incheon 032.430.1989 / gwangju 062.360.1267 / LOTTE main 02.772.3460 / jamsil 02.2143.7224 / nowon 02.950.2487 / pusan 051.810.3379 / kwangbok 051.678.3523 / daejeon 042.601.2425 / cheongyangni 02.3707.1460 / AK PLAZA bundang 031.8023.2255 / suwon 031.240.1397 / GALLERIA suwon 031.548.8510 / timeworld 042.720.6251 / center city 041.412.9224

LEBEIGE

루이 비통 에피 네버를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에피 가죽 라인에 브랜드의 스테디셀러인 네버를 디자인을 접목해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인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세련된 파우치까지 갖췄다. 32.5X29cm 2백40만원대, 문의 02-3432-1864



마크 제이콥스 메트로폴리탄 백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이름을 따온 클래식한 스퀘어 형태의 백. 양가죽 보드의 시드 에 스퀘이드 소재를 믹스해 무게를 덜고 풍성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30X24cm 2백만원대, 문의 02-545-5981



셀린 타이 백 사다리꼴을 뒤집은 듯 독특한 형태의 타이 백. 손잡이 부분의 매듭 장식과 잠금장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닫히는 카디안 플랩, 인쪽의 가죽 패들 등 셀린의 독특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31.5X29cm 4백80만원, 문의 02-3440-1547



말루 로렌 소프트 리키 백 말루 로렌 리키 백을 경쾌하고 캐주얼하게 해석한 소프트 리키 백. 안감을 최사한 컬러로 배색해 더욱 감각적이다. 31.5X29cm 2백만원대, 문의 02-545-8200



구찌 레이디 락 구찌의 아이코닉한 라가치 리카와 동일한 스타일의 메탈 클로저, 대나무 핸들, 매끈한 향파가 돋보이는 백. 카프 스킨부터 파이론, 오스트리치 등 이그조티브 레더까지 다양한 가죽으로 선보인다. 37X23cm 3백80만원대, 문의 1577-1921



생 로랑 미니 삭드 줌르 미니-형의 스퀘어 향파에 송치 소재로 고급스럽게 완성한 삭드 줌르 백의 미니 사이즈 버전. 가장 인쪽에 지퍼 주머니가 있고,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실용적이다. 32X25cm 3백만원대, 문의 02-547-5741



말버리 프리클로즈 말버리의 아이코닉한 잠금 장식과 태그, 빈티지한 사벨 백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윤기가 돌도록 소가죽을 매끈하게 가공하고, 견고한 핸들을 더했다. 28X19.5cm 2백70만원대, 문의 02-3442-2266



샤넬 보이 사벨 백 이번 시즌 런웨이에서 선보인 록 스피릿의 부츠 디테일을 보이 사벨 백에 옮겨왔다. 유연한 카프 스킨에 다양한 체인 장식을 가장 잔잔한 디테일로 사용해 강렬한 느낌을 준다. 28X18cm 가격 미정, 문의 02-543-8700



펜디 셀루리아 아델 1328 생동감 있는 컬러와 정교한 디테일이 눈에 띄는 이번 시즌 셀루리아 라인에는 각 제품의 이름과 함께 스타치 넘버를 표기해 펜디의 장인 정신을 강조했다. 29X24cm 4백70만원, 문의 02-2056-9023



Folli Follie

그리스 감성을 담은
패션 워치 & 주얼리. 폴리폴리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262 | 잠실점 02-2143-7168 | 명산점 031-909-3187 | 평촌점 031-8086-9246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484 | 목동점 02-2163-1177 | 신촌점 02-3145-2188
신호점 02-2225-7187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711 | 센텀시티점 051-745-1285 | 의정부점 031-709-9503 | 타임스퀘어 070-8668-7244 | www.follifolliie.co.kr



브리오니 포트폴리오 톤 다운된 블루 컬러 송아지 가죽의 미니멀한 형태가 돋보이는 스퀘어 클러치백. 가장 잔잔의 심플한 버클 장식만으로 세련된 맛을 드러냈다. 클래식한 슈트를 모던하게 변신시켜줄 아이템. 36X26cm 4백80만원. 문의 02-540-4723



일프 로렌 블랙 라벨 릴티드 브리프케이스 일프 로렌의 럭셔리 자동차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릴티드 디테일과 빈티지한 컬러감이 특징이다. 가볍고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다. 40X29cm 1백56만원. 문의 02-6004-0136



에르메스 1/port 도큐먼트 홀름 12H 백 특별한 장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형태와 최고급 가죽으로만 승부하는 백. 다양한 포켓으로 수납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실용적이다. 41X29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토즈 더블 스트라이프 백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는 송아지 가죽의 더블 스트라이프 백은 데일리 백이나 워킹엔드 트래블 백으로 두루두루 활용도가 높다. 스트라이프를 원하는 컬러로 선택해 맞춤 제작할 수 있다. 41X36cm 2백17만원. 문의 02-3438-6008



Z 제나 사파이는 토트백 가죽의 깊이감이 살아있는 사파이는 소재의 다크 그린 컬러 토트백. 가장 잔잔의 독특한 패턴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이-설 참 장식, 견고한 사각 형태로 비즈니스맨에게 추천한다. 37X38.5cm 1백만원대. 문의 02-546-6287



휴고 보스 로빈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완성한 핸드백 디테일은 그림감이 뛰어나며, 편안한 숄더 스트랩이 있어 활동적인 캐주얼 룩에 제격이다. 빈티지한 느낌이 나오는 가공한 송아지 가죽은 손때가 탈수록 멋스러워진다. 41X31cm 1백23만원. 문의 02-515-4088



버버리 보스턴 백 버버리의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중 하나인 보스턴 백이 이번 시즌 다양한 패턴 프린트와 브랜딩 고유의 하우스 체크를 결합한 현대적인 스타일로 거듭났다. 44X25cm 4백20만원. 문의 02-3485-6583



MCM 아머 백팩 파이톤 스킨 패턴과 사이드의 스트립 장식으로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한 백팩. 지난 시즌보다 작고 심플한 스타일을 배려했고 가죽의 비중은 늘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42X31.5cm 90만원대. 문의 02-540-1404



폴 스미스 미니 클러치백 이번 시즌 폴 스미스는 영국 마을의 자취노을이 붉게 물든 황혼 낱을 배경으로 한 미니 클러치백을 선보였다. 내부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폼이 장착되어 랩톱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 39X26cm 29만원. 문의 02-6957-5815



스타일링스트 유한정 에디터 이애진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피부
셀-바이오™ 과학으로 매일매일 맑고 매끄럽게 - 헤라 셀 에센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놓칠 수 없다면 헤라 셀 에센스를 시작해보세요
헤라는 셀-바이오™ 과학을 통해 피부 활성화의 핵심, 생체수를 모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수의 다섯 가지 비밀코드(미네랄, 아미노산, 리피드, 슈거, 펩타이드)를 연구한 헤라 셀 에센스- 놀라운 피부변화를 느껴보세요*

*Cell-Bio™ 피부 동화 포올라
피부 생명활동의 근본인 셀 연구를 통해 피부의 유사한 성분을 모사, 피부에 빠르게 동화되어 획기적인 피부변화를 선사합니다

HERA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150 mL / 30 Days
Amount per use : 2.5 mL

	Code	Efficacy
Ion	Balancing	Moisturizing
Amino Acid	Moisturizing	Skin Evenness
Peptide	Revitalizing	Skin Brightness
Sugar	Energy	Transparency
Lipid	Barrier	Firming

NEW
미백 기능성
주름 개선 기능성
시름의약품 안전제

time to Express

완벽한 시계에 대한 빅 패션 하우스의 끝없는 열망은 나날이 발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위치를 탄생시켰다. 클래식한 위치에 담은 패션 하우스의 아름다운 시간.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오른쪽 위부터 아래로) **파라기모 이탈리오 컬렉션**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화려한 패턴의 다이얼이 인상적인 고혹적인 컬러의 이탈리오(DILIO) 여성 워치. 동화 속 인어 공주에게 영감을 받아 머리오브핀을 이용해 물고기 비늘 패턴의 다이얼을 완성했다. 각도에 따라 신비로운 바이올렛 컬러를 볼 수 있다. 1백만원대, 문의 02-3284-1300

밴디 크라이지 카터 간단히 태엽을 감아 컬러 스톤의 워치를 바꿀 수 있는 독특한 콘셉트의 워치. 우아하면서도 기발한 방식으로 시간 조정을 위한 태엽과 보석을 회전할 수 있는 태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이아몬드와 그린 컬러 스톤을 세팅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운 위치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4백91만원, 문의 02-2066-9023

버버리 더 브리튼 영국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독특한 디자인의 남성 워치. 47mm에 달하는 볼드한 케이스, 날짜와 크로노그래프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무량의 블루 다이얼이 강렬한 느낌을 준다. 2백73만원, 문의 02-3438-6683

에르메스 아스 크로노 브리통 43mm의 스틸 케이스에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에르메스의 스포츠 워치. 승마에서 영감을 얻은 아스 컬렉션의 특징을 담아 말의 재갈을 본떠 새롭게 제작한 고체 모양 에르메스 스트랩을 장착해 클래식하면서도 스포티하다. 케이스와 스트랩의 연결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디자인이 특징. 에르메스의 아름다운 컬러를 입은 다양한 색상의 스트랩 중 선택할 수 있다. 8백만원대, 문의 02-3448-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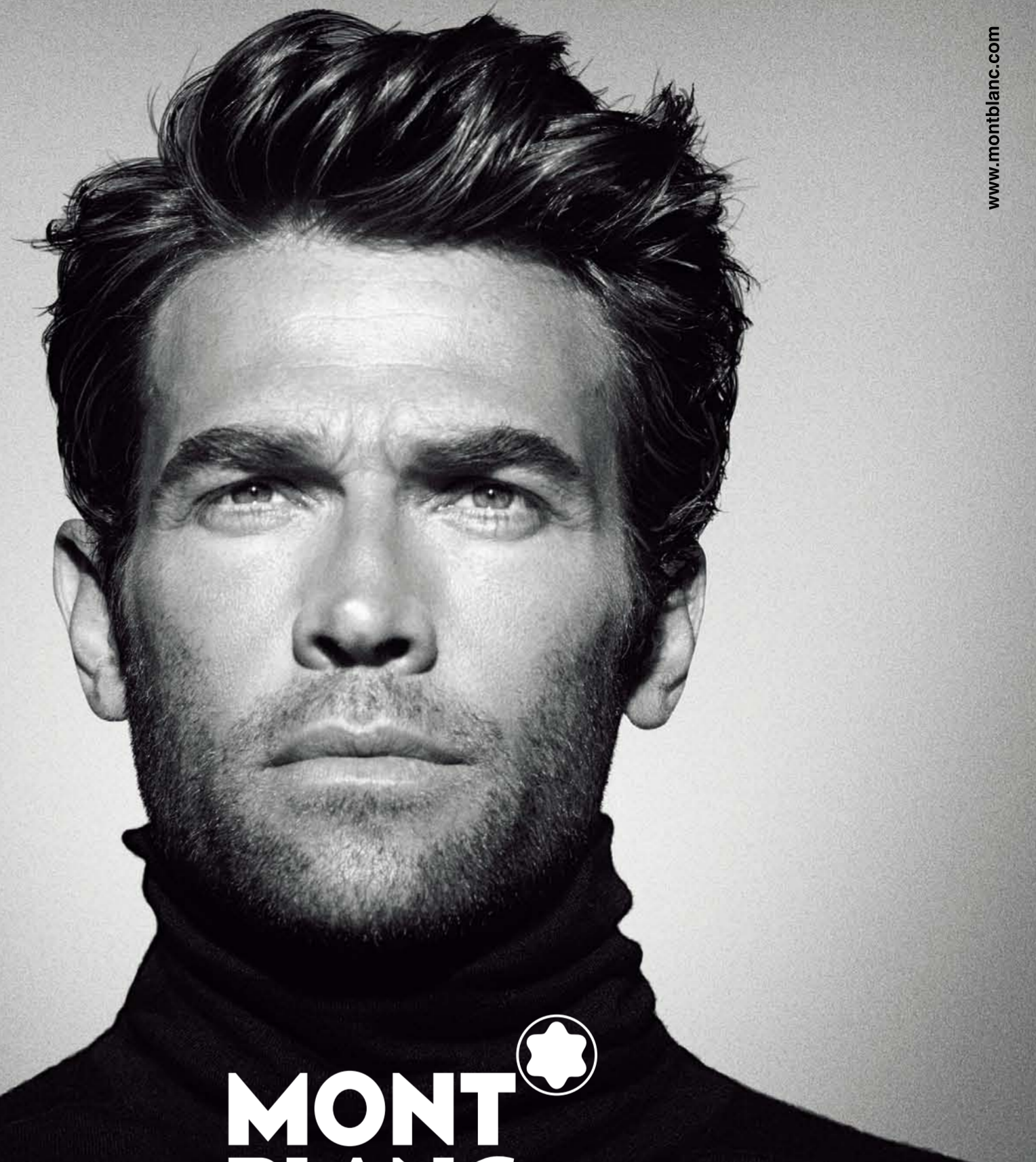
루이 비통 탕부르 에센서 GMT 여행을 테마로 2002년 첫선을 보인 탕부르(Tambour)에 센서 브라운 컬러의 두 번째 버전. 41.5mm의 볼드한 케이스에 GMT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브라운 다이얼 패턴 소가죽 스트랩을 통해 브랜드의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5백만원대, 문의 02-3440-1727

구찌 타임피스&주얼리 트윈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프란코 자야나니가 직접 디자인한 베스트셀러 여성용 워치인 트윈(Twin) 라인. 시간을 볼 수 있는 다이얼 케이스가 특징인 것이 특징이다. 다이얼 케이스를 뒤로 돌리면 시계 문자판이 감춰지면서 반글로 변신한다. 골드 메탈에 구찌 사마 패턴 가죽을 매치한 골드 핑거 워치는 1백46만8천원,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실버 메탈 워치는 4백72만8천원, 문의 02-551-7045

에르메네제르노 제나 몬태루벨로 제나 클래식한 수트에 어울리는 워치를 선보인 에르메네제르노 제나 워치 마스터피스 워치. 1947년 포켓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자판드 페르그의 무브먼트를 장착해 완성도를 높였다. 38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자판드 페르그의 기계식 무브먼트 GP0300-0030를 장착했다. 46시간 이상의 파워 리저브 기능이 갖춘 최고의 무브먼트 메이커와 이탈리아 정통 수트 브랜드가 만나 완성한 소장 가치 높은 클래식 워치 컬렉션이다. 3천5백만원대, 문의 02-511-0285

에르메네제르노 제나 하이퍼데몬스 크로노그래프 이탈리아 수트 브랜드 에르메네제르노 제나와 최고의 무브먼트를 생산하는 자판드 페르그를 생산하는 소위 그릴이 합작해 탄생시킨 스포츠 워치. 블랙 컬러의 보드에 블랙 라바 밴드를 매치한 강렬한 디자인은 물론 타카미치 기능까지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스포티하면서도 정중한 느낌을 주는 유니크한 디자인이다. 4백만원대, 문의 02-511-0285 **에디터 배미진**

스타일링: yum jung hoon



MONTBLANC
LEGEND
 THE FRAGRANCE FOR MEN



몽블랑 레전드 수면원 (주)코이 080-880-8800

Catch me!

섬세한 주얼 장식과 강렬한 컬러, 독특한 형태의 클러치백은 드레시한 룩의 완성도를 높여줄 강력한 무기임에 분명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기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린, 파플 등 화려한 주얼 장식과 직한 골드 버클로 고급스럽게 완성한 클러치백, 31X15cm, 8백만원대 **블라티**,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7방 전체에 세팅한 스킨 톤 클러치백, 12X17.5cm, 2백만원대 **주사메 자노티**, 자가 모티브 장식이 움직일 때마다 랑가리는 부드러운 벨벳 복주머니 형태 클러치백, 10X20cm, 2백50만원대 **토마스 와일드 by 주노세과**, 손잡이가 독특한 원형 클러치백, 골드와 블랙의 모던한 컬러 매치를 주목할 것, 5.5X13cm, 4백50만원대 **랑방**, 한 면은 양가죽, 다른 면은 페이퍼트 가죽을 매칭한 선명한 레드 컬러 클러치백, 11X15cm, 1백98만원대 **렌디**, 골드, 실버, 블랙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과 사틴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클러치백, 10X18cm, 1백40만원대 **스와로브스키**, 체크 패턴의 패브릭에 엔트릭한 주얼 장식을 다한 사틴 클러치백, 9X18cm, 가격 미정 **샤넬**, 에디터 **이예진**

블라티 02-2056-0172 주사메 자노티 02-543-1937 주노세과 02-515-3151 랑방 02-6905-3582 렌디 02-2056-9021 스와로브스키 02-3438-6108 샤넬 02-543-8700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Mercedes-Benz Perfume

The first feminine fragrance

mercedes-benz.com/perfume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Mercedes-Benz

롯데백화점 북점 02-772-3437 / 노원점 02-950-2155 / 미아점 02-944-2576 / 중동점 032-320-7141 / 익산점 031-909-3142 / 부산점 031-738-2160 / 부산점 051-668-4171 / 안산점 031-412-786 / 광주점 062-606-2726 / 고양점 031-462-2158 / 부평점 032-452-2176 / 구리점 031-550-7134 / 청원점 055-279-3919 / 현대백화점 북점 02-348-6225 / 신촌점 02-3145-2030 / 송동점 032-632-2131 / 용산점 052-228-0151 / 부산점 051-667-0160 / 천호점 02-2225-7199 / 김해점 031-622-3262 / 미아점 02-2117-1144 / 무주점 02-9467-6786 / 부산점 051-667-0160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5 / 진안점 032-450-1334 / 마산점 052-240-1256 / 부산백화점 051-745-1209 / 영등포점 02-2639-4152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67-1770 / 천안점 041-554-5777 / 대전점 042-489-3777 / 안주점 055-791-1168 / AK몰라자 구로본점 02-855-8111 / 수원점 031-240-1158 / 통영점 031-8023-2125 / B7갤러리 메세나홀점 02-333-7211 / 롯데영플러자 대구 053-609-2589 / 마린오아몰점 02-206-2205 / 롯데이몰점 용유 043-717-2589 / 롯데이몰점 파주 031-960-2946 / 롯데이몰점 김해 055-900-2779

공식수입원 (주)세이오인테리너럴 www.ceo.co.kr 문의 080-363-5454



Beyond the blue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하이 주얼리를 최초로 만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슴 뛰는 일이다. 지난 8월 홍콩에서 1백76년 역사의 티파니가 아름다운 2013년 새로운 하이 주얼리 프리뷰 전시를 개최했다. 유색 젬스톤에 웅장하고 찬란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은 티파니의 고귀한 열정이 피어난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웅장하고 찬란한 바다의 아름다움

1백76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명성의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 웨딩 링부터 옐로 다이아몬드까지 전설적인 주얼리 컬렉션을 갖춘 브랜드인 만큼 하이 주얼리 컬렉션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지난 8월 29일, 홍콩에서 티파니의 2013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하는 프리뷰 전시가 펼쳐졌다. 바다가 선사하는 푸른빛과 상쾌한 기운, 장엄함을 담은 <비욘드 더 블루(Beyond the Blue)> 컬렉션으로 채운 전시장은 우아하고도 매력적인 빛으로 가득했다. 홍콩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19세기 중반 영국 군대가 세운 무기 저장고 부지에 1990년 새롭게 건립한 홍콩의 랜드마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빌딩에서 전시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슈였는데, 명품의 메카라 할 수 있는 홍콩 중에서도 이곳에서 전시를 연 럭셔리 브랜드는 티파니가 처음일 정도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비욘드 더 블루> 프리뷰 전시 전반을 아울러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화사하고도 고귀한 색채, 최고의 품질로 선별한 다이아몬드와 투르말린, 아파라민, 사파이어, 에메랄드, 차보라이트 등 티파니의 역사와 함께 해온 컬러 젬스톤들이 주얼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디자인에 모던하고도 여타 브랜드에서 보기 어려웠던 개성 넘치는 컬러 젬스톤을 더한 최상의 하이 주얼리들이 티파니만이 묘사할 수 있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이다.

완벽한 다이아몬드와 전설적인 컬러 젬스톤

티파니의 창시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귀족과 왕족에게서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를 매입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877년에는 아프리카 킴벌리 광산에서 발견된 287.42캐럿의 펜시 옐로 다이아몬드를 구입해, 절반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가면서 이례적인 82면의 정교한 124.54캐럿 티파니 다이아몬드를 완성하게 된다. 티파니의 전설은 이러한 열정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렇듯 엄선한 원석과 다이아몬드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커팅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티파니가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번 컬렉션에서 티파니가 새롭게 선보인, 15세기를 대표하는 '로즈 컷'을 재해석한 다이아몬드 주얼리들은 일반적인 다이아몬드와는 다른, 물 흐르듯 영롱한 다이아몬드 본연의 신비한 빛을 드러내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눈부신 다이아몬드와 함께 이번 컬렉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컬러 젬스톤 주얼리는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은 걸작이다. 티파니는 1백76년의 역사를 통해 다양한 컬러 젬스톤을 세상에 소개했는데, 티파니 디자이너들의 창조성과 장인 정신을 통해 이 원석들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는 너무나도 유명한 잔 슬럼버제(Jean Schlumberger). 화려하고 섬세할 뿐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은 잔 슬럼버제의 주얼리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이번 컬렉션에도 잔 슬럼버제의 주얼리에서 영감을 받은 기념비적인 작품이 대거 등장했다. 4백84개의 터키석을 중심으로 바늘 모양의 태슬을 형성화한 터키석 태슬 네크리스, 재클린 케네디의 시그니처 주얼리로도 유명한 에나멜 팔찌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이외에도 티파니 블루 컬러를 담은 희귀한 보석, 쿠프리언 엘바이트 투르말린을 사용한 브로치와 이어링, 색감이 강렬한 몬타나 사파이어, 푸른 바다 자체를 상징하는 아파라민, 티파니를 대표하는 옐로 다이아몬드까지, 다양한 컬러 스톤들이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다. 자연에 대한 경외를 주얼리의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티파니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오랜 역사를 지켜온 주얼리 브랜드의 유산과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담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1 다이아몬드 세심한 에나멜링 기법을 더해 화려한 패턴의 나비를 묘사한 티파니의 하이 주얼리 브로치, 2 라운드 몬타나 사파이어와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련한 에메랄드 펜던트, 3 15세기 로즈 컷 기법을 재해석해 티파니가 새롭게 고안한 독특한 빛의 다이아몬드 상들리에 이어링, 4 블랙 오프닉스와 아파라민의 조화가 유니크한 링, 5 14.51캐럿의 에메랄드 컷 아파라민과 3백63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88개의 블랙 오프닉스를 세팅해 대담히 화려한 브레이슬릿, 6 최상급 에메랄드 센터 스톤을 더한 메탈로 옐로 컬러를 선택해 새로운 느낌의 우아함을 창조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ALL-NEW LINCOLN MKZ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 플루이드 모션의 감성이 살아있는 공기역학적인 바디라인과 링컨 스플릿 윙 그릴의 조화는 마음까지 설레게 합니다. 또한, 링컨 MKZ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선루프까지. 이처럼 섬세한 디테일은 아름다움을 넘어,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전혀 새롭게, 당신처럼 완벽해진 올 뉴 링컨 MKZ



lincoln-korea.com

승파	02)6928-3000	방배	02)6929-3000	신사	02)3444-1300	삼성	02)3442-2300	서초	02)535-3800	미아	02)6355-1000	강북	02)2246-2100
강서	02)2063-6300	구리	031)8034-1000	의정부	031)822-1000	평촌	031)425-2212	분당	031)714-2004	일산	031)913-2200	수원	031)221-7600
인천	032)832-0001	원주	033)762-0040	대전	042)823-2000	천안	041)562-0007	전주	063)273-0005	광주	062)515-1010	대구	053)766-2000
울산	052)261-3388	창원	055)715-5000	부산	051)741-5114	부산영	051)758-0075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링컨 MKZ: 배기량(cc) 1999 공차중량(kg) 1760 지동6단 복합연비(km/l) 10.2 도심연비(km/l) 8.5 고속도로연비(km/l) 13.3 동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g/km) 174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 24시간 긴급 콜센터 및 서비스 문의: 080-300-3673, 02)517-4357 ※ 전국 25곳의 서비스 네트워크와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로 365일 안심하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One Man Show

감성 짙은 유쾌함, 시니컬한 젠틀함, 달콤한 마초스러움... 대중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2013년 깊어가는 가을, 새로운 룩을 통해 카메라와 교감하는 배우 류승룡의 원맨쇼. *photographed by duk hwa*

블랙 레더 재킷 트루사이드,
화이트 셔츠 알레그리,
블랙 팬츠 타임옴, 블랙 옹크
스트랩 슈즈 피치오티.

블랙 수트,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블랙 보타이,
블랙&화이트 행커치프
모두 톨 포드, 시가와 시가 커터,
유리 재떨이 모두 다비도프.



네이버 컬링 재킷 Z 제나,
프린트 티셔츠 트루사디,
블랙 벨벳 팬츠 조르지오
아르마니, 와인 컬러 스웨이드
슈즈 피치오티.



브라운 레더 재킷,
네이버 도트 셔츠, 베이지
코튼 팬츠 모두 **휴고 보스**,
판칭 스트림 워치
프레드릭 콘스탄틴.



화이트 셔츠, 핀 스트라이프
블랙 캐시미어 니트 베스트,
블랙 팬츠 모두 에르메네일도 제나,
블랙 레더 앵클부츠 토츠,
블루 다이얼의 씨마스터 아쿠아테라
에뉴얼 캘린더 스틸 워치 오메가.



그레이 핀 스트라이프 수트,
도트 패턴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도트 넥타이
모두 롤체엔가버나,
클래식 워치 에거 르골트르.



그라데이션 칼라 코트,
바이올렛 컬러 셔츠
모두 질 센터, 그레이 울 팬츠
에르마노 셀비노,
브라운 레더 벨트 던힐.



스웨이드 재킷 토조,
그레이 울 팬츠 에르마노
셀비노, 블랙 레더
밴드 드립 아워워치 에뉴업
캘린더 워치 오메가.

헤어 백가영
메이크업 백유민
스타일리스트 구동원
캐스팅 디렉터 안상미
에디터 배미진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트루사디 02-3470-1773
폴체안가바나 02-3444-0077
에르메네일도 제냐 02-511-0285
Z 제냐 02-546-6287
던힐 02-3440-5615
토조 02-3448-8198
파치오리 02-545-8757
틀 포드 02-6905-3534
다비도프 02-2230-3760
질 센터 02-512-6297
에르마노 셀비노 02-6905-3650
타임 울즈 02-3442-0312
프레드리 콘스탄틴 02-2147-6654
에거 로콜트르 02-756-0300
오메가 02-511-5797
알레그리 02-3444-1730
휴고 보스 02-515-4088

* 본 책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fine Makeup

멋을 즐길 줄 아는 여성이라면 그 계절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갖춰야 하는 법. 카키, 브라운, 골드 등 가을을 위한 깊고 풍요로운 컬러와 메탈릭한 셰이드가 여자의 얼굴을 우아하게 물들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가운데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겔랑 미담 루지 블러쉬** 퍼플 핑크, 코랄, 베이지, 라즈베리까지 네 가지 셰이드를 담은 블러셔. 그날 메이크업 콘셉트에 따라 한 컬러로만 신중하게 연출하거나 네 가지 컬러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게 연출해도 좋다. 8g 8212천원. 문의 080-343-9500

나스 싱글 아이섀도우 컴파카 볼과 입술의 색으로 일러진 러시 아 지형에서 영감을 받은 네이비 스모키 싱글 섀도우. 화선성의 결명한 푸른빛을 담은 선명하고 신비로운 컬러가 매력적이며, 몽창을 방지하는 특별한 포도라라 다른 컬러와도 쉽게 블렌딩할 수 있다. 2.2g 3214천원. 문의 02-6905-3747

비비 브라운 스킨케어 아이섀도우 미세한 필라 클리프가 눈부신 반짝임을 더하는 파우더 타입 아이섀도우.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쌍꺼풀 라인에 묻히는 크리드 현상을 막고 8시간 동안 번지지 않아 색상이 변형없이 유지된다. 3g 4214천원. 문의 02-3440-2781

팩 프로 블레이드 아이섀도우 핫 파프리카 브랜드만의 혁신적인 폼제 어빙 테크놀로지를 담은 아이섀도우. 밤금 메이크업을 한 듯 편안한 느낌을 15시간 지속한다는 콘셉트로, 소프트한 베이스 컬러부터 선명한 포인트 컬러까지 원하는 만큼 닷칠라 빛색을 조절할 수 있다. 3.4g 2218천원. 문의 02-3440-2645

시세이도 퍼펙트 루즈 꾸준한 사랑을 받은 시세이도의 퍼펙트 루즈가 이번 시즌 더욱 강화된 발색력과 10개의 다양한 컬러로 선보인다. 따뜻한 부드러운 핑크 블루와 강렬한 플로럴 핑크가 베스트 아이템. 4g 3215천원. 문의 080-564-7700

랑콤 로즈 데자르 블러시 랑콤 정미와 애플링, 입술이 그려진 패키지에 담을 수 있듯 피아에서 영감을 받은 로즈 데자르 블러시는 은

은하게 빛나는 옐로우와 핑크 두 가지 셰이드로 이루어져 고급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9g 5212천원. 문의 080-022-3332

디올 디올스 퓨전 모노 라운드 형태의 케이스에 담긴 메탈릭한 크림 섀도우. 켈-무스 텍스처와 살짝만 터치해도 가볍게 발색되며,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고 하루 종일 색상이 유지되는 폼제 스퀴어링 효과를 겸비했다. 6.5g 4214천원. 문의 02-3438-9631

겔랑 루즈 G D 겔랑 케이스를 담은 도트 무늬 베일 프린트+고급 스카운 느낌을 주는 립스틱. 고농축 색소의 함유부분을 담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며, 안쪽에 쿼터한 거울이 있어 수정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다. 3.5g 5219천원. 문의 080-343-9500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하이 인텐시브 립 락커 립스틱의 카바릭과 립글로스의 글로시한 광택을 동시에 갖춘 소프트한 립 락커. 브랜드의 독창적인 '투루 비전' 테크놀로지는 입술에 입은 수분막을 씌운 듯 촉촉함을 유지하게 하며 중 모양의 커브 형태로 디자인한 애플리케이션이 입술 라인을 도톰하고 매끄럽게 연출해준다. 6ml 3218천원. 문의 02-3440-2772

크리니크 울 아바웃 시도우 보이는 그대로 발색하는 투루 컬러 효과를 담은 아이섀도우. 가을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메이크업 초보자들도 쉽게 아이 메이크업을 따라 할 수 있다. 연약한 눈가 피부를 위해 무루무루 베타와 비타민 E 성분을 담고, 알레르기와의 인과 테스트를 거쳤다. 부드럽고 메드한 마무리부터 강렬한 반짝임까지 다양한 셰이드를 갖췄다. 2.2g 3214천원. 문의 02-3440-2773

크리니크 빅 라이너 포 아이즈 인텐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인 아이 펜슬인 '빅 라이너 포 아이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도약해진 컬러와 부드러운 텍스처로 업그레이드된 뉴 아이 라이너. 한 번의 터치만으로 미묘하게 빛나는 크리미한 질감과 12시간 동안 아이지는 지속력이 강하다. 0.3g 2214천원. 문의 02-3440-2773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비비드 라인 내일 락커 정제된 필라 랩뮤 비를 담은 메탈릭한 컬러가 손끝에 반짝임을 더하는 모던한 네일 락커. 탄력 있는 브러시는 용치거나 갈라짐이 없이 부드럽게 발리며, 한 번만 발라도 오랫동안 발색되어 메드하게 마무리된다. 9ml 2216천원. 문의 02-3440-2772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비비드 라인 내일 락커 정제된 필라 랩뮤 비를 담은 메탈릭한 컬러가 손끝에 반짝임을 더하는 모던한 네일 락커. 탄력 있는 브러시는 용치거나 갈라짐이 없이 부드럽게 발리며, 한 번만 발라도 오랫동안 발색되어 메드하게 마무리된다. 9ml 2216천원. 문의 02-3440-2772

my beauty Secret

1980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SK-II의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피테라 에센스.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분과 패키지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확실하고 변함없는 효과와 그에 따른 놀라운 피부 변화 때문이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영화 <숨바꼭질>의 제작자 김미희 대표는 10년간 SK-II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면서 그녀의 피부도, 인생도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녀가 전하는 성공한 여성의 삶과 뷰티 시크릿.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K-II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75ml 9만1천대, 150ml 17만1천대.

영화 제작자로 산다는 것
올여름 극장가의 최대 화제작은 <숨바꼭질>이다. 화려한 특수 효과, 내로라할 톱스타도 없는 이 영화의 흥행 질주에 어떤 이들은 영화계의 반전이라 말한다. 9월 22일 기준 관객 수가 5백50만 명을 돌파해 영화 <살인의 추억>을 넘어 스릴러 장르 1위를 찍으며 소위 '대박 작품'이 되었지만, 이를 진두지휘한 제작자 '스튜디오 드림 캡처 김미희 대표'는 오히려 덤덤한 반응이다. 기쁨은 뒤로하고 오히려 울겨울에 촬영할 차기 작품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다는 그녀. '잘되도 중심 잡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이라는 신조를 지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김미희 대표는 자신 앞에 놓인 '능력 있는 제작자'라는 타이틀에 손사래를 치며 겸손함을 보인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영화의 흥행으로만 성공을 측정한다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전 능력보다는 인내와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주변에 좋은 감독과 배우, 스태프,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지인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흥하기도, 완전히 망하기도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계에서 김미희 대표는 <숨바꼭질> 이외에도 <타짜>, <비열한 거리> 등의 히트작을 내놓았다. "제작자는 하나의 영화를 선택해 감독이나 작가를 발굴하고 투자와 캐스팅을 해 영화를 완성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제작자를 믿고 함께 일하는 배우와 스태프에게 신뢰를 지버리지 않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독하고 밑바탕을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죠. 영화를 선택할 때는 그 영화만의 차별성과 매력, 콘셉트,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 영화에서는 귀신이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했고, 특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다른 이 때문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공포감이 셀링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은 피부에서부터 시작된다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빛과 오라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영화 제작자의 꿈을 키우는 이에게는 물론 인생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여성의 롤 모델인 김미희 대표에게서는 그녀만의 특별한 오라가 느껴진다. 분초를 다투는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법도 한데 그녀의 얼굴에선 생기가 감돈다.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만 해요.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 종일 반려견 해피와 놀며 힐링 타임을 갖

죠. 조금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아이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SK-II 매니아 클럽으로 10년간 활동 중인데, 첫 한국 론칭 때부터 꾸준히 사용하면서 내면과 외면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 SK-II를 한국에 론칭했을 때 각 분야의 여성 한 명씩을 SK-II 매니아 클럽 회원으로 선정했는데, 그중 한 명이 김미희 대표였던 것. 그 후로 10년이 넘게 브랜드와 인연을 이어온 그녀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SK-II 제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10년간 SK-II 제품을 사용했어요. 특히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면서 피부 톤이 투명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새 피부 톤이 고르고 훨씬 맑아져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한 후배들을 보면 적극 추천하고 선물하기도 해요." 그녀는 10년 동안 쌓인 자신만의 노하우도 덧붙인다. "피테라 에센스는 피부가 건조할 때마다 자주 닦발라요. 미스트처럼 뿌리기도 하고요. 특히 피테라 마스크와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겨울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마스크 팩을 하고 피테라 에센스를 듬뿍 발라 수분을 공급해요." 1980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SK-II의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피테라 에센스는 핵심 성분인 피테라™를 90% 이상 함유한 고농축 에센스다. 사계 양조장에서 나이 든 주조사의 주름진 얼굴과는 달리 아이같이 부드럽고 고운 손에서 영감을 받아 피부에 좋은 효모를 찾기 위해 3백50여 종의 효모를 연구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피테라™다. 천연 발효 대사액인 이 성분은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해 피부 세포와 매우 흡사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워터 타입으로 피부에 순하고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피부 리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며, 맑고 투명한 피부의 다섯 가지 요소(피부톤, 탄력, 피부 광채, 피부 톤, 표정 라인)를 개선해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 세안 후 화장수에 5백원짜리 동전 크기로 문혀 토크 두들기면서 흡수시키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수시로 발라주면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은 피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피테라 에센스를 10년간 써왔지만 다른 어떤 화장품보다 효과적이고, 주변에서도 제 피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전부 피테라 에센스를 꾸준히 써온 덕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자신감을 잃으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말하는 김미희 대표. 투명하고 맑게 빛나는 피부와 함께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감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문의 080-023-3333 **에디터 권유진**

DAZZLING!

스타들에게 최고의 쿠티르 디자이너는 기존의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순수하면서도 시크하고 관능적인 매력을 지닌 드레스로 그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창조자다. 고도의 기교를 통한 재단 능력과 감이 깊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재료들. 엘리 샵 퍼퓸은 당신이 마치 엘리 샵의 드레스를 입은 것과 같은 화려한 여성스러움과 당당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HAUTE COUTURE Ultra-contemporary Glamour

디자이너 엘리 샵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늠하는 예리한 눈을 지니고 있다. 그는 2000년 오트 쿠티르 협회에 가입했고, 이제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아름다운 창조물인 그의 드레스를 아주 당연하게 즐겨 입는다. 그의 롱 드레스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난 관능미와 숨 막히게 아름다운 옷의 곡선은 화려함에 대한 찬가이다.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여성스러움을 송고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의 미술사와도 같은 재주와 실력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넘치는 매력,
그리고 여성스러움.
이것이 나의 스타일을 정의해준다.”

HAUTE PARFUMERIE

ELIE SAAB Le Parfum

환상과 리얼리티의 절묘한 변주를 선보인다.

엘리 샵 향수는 화려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빛나는 오렌지 블러쉬와 부드러운 허니 로즈와 같은 독특하고 중독성 있는 향조를 하나로 아우른 결정체이다.

엘리 샵 향수 컬렉션의 세 가지 라인은 저마다 뚜렷한 강렬함과 컬러를 지녔다.

- 차이나무와 만다린 꽃 향조로 이뤄진 오드 투왈렛은 이른 아침의 부드러운 감촉과도 같다.
- 눈부신 햇살을 담은 오드 퍼퓸은 이집트 재스민과 화이트 플라워가 절정에 이른 순간, 빛과 아우러진 듯한 향이다.
- 오드 퍼퓸, 오드 투왈렛에 이어 새롭게 출시된 오드 퍼퓸 인텐스는 황혼 무렵의 풍경을 떠오르게 한다. 매혹적인 오리엔탈 플로럴 계열의 엘리 샵 오드 퍼퓸 인텐스는 파출리, 앰버와 따뜻하게 아우러진 일랑일랑의 향을 따라 피부를 살며시 감싸 안는다. 한여름 밤의 미술과도 같이.



엘리 샵 오드 퍼퓸
50ml 12만5천원

THE NEW FRAGRANCE(9월 출시)
엘리 샵 오드 퍼퓸 인텐스
50ml 12만9천원

엘리 샵 오드 투왈렛
50ml 10만7천원



톱 모델 안야 루빅(Anja Rubik)을 모델로 한 엘리 샵 향수의 광고 비주얼. 극도의 관능과 모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ELIE SAAB
LE PARFUM

NEW EAU DE PARFUM INTENSE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엘리 샵이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소지하고 매장을 방문하시는 고객님께 비즈 장식의 이브닝드레스를 연상케 하는 엘리 샵의 신제품 '엘리 샵 오드 퍼퓸 인텐스' 샘플을 증정합니다.

◆ 기간 2013년 10월 2일(수)~8일(화), 7일간

◆ 해당 매장 롯데백화점 잠실점 퍼퓸 스텝 매장(02-2143-7186), 롯데백화점 본점 퍼퓸 스텝 매장(02-772-3098), AK 분당점 퍼퓸 스텝 매장(031-709-5961)

*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으며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Smart Anti-aging drama

단 하나의 크림으로 다섯 가지 효능을 선사하는, 자연스러운 탄력과 볼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특별한 스마트 안티에이징 크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후천적 동인을 만드는, 르 리프트

빅 브랜드에서 새로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선보인다는 것은 언제나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일이다.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여성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효과만이 정답이기 때문이다. 항상 브랜드의 명성에 걸맞은 섬세함을 담은 샤넬이 올해 새로운 안티에이징 제품인 '르 리프트'를 선보였다. 블랙 컬러의 낮은 케이스에 담겨 있는 여린 핑크 빛 크림은 일단 외형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여성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샤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처럼, 이 제품은 시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동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타고난 동안이라면 가장 큰 행운이겠지만, 지금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어리고 젊은 얼굴을 얻을 수도 있다.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샤넬은 이러한 '후천적 동안'이라는 키워드에 착안해 장기적으로 노화의 흐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이에 주목한 것이 바로 '후성 유전자'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지만 내용은 심플하다.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 개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천적인 유전 요소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조합을 넘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생명체이기에,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면 피부 컨디션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피부에 작용하는 유전적 요소를 넘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개발한 것이 샤넬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 '르 리프트'다.

젊은 단백질 활성화를 통한 다섯 가지 스마트 피부 케어

그렇다면 르 리프트 크림은 무엇으로 피부 환경을 최고의 상태로 바꾸어줄 수 있을까?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miRs'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테지만, 이것은 우리가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으로,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안티에이징 관련 제품 개발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분 연구인데, 샤넬은 노화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텔리노 교수와 후성 유전자 법칙과 피부 노화의 관계를 오랜 기간 공동 연구했다. 그 결과 피부 노화에 관여하는 세 가지 중요한 'miRs'를 밝혀낸 것이다. 'miRs'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데 그 수가 늘어날수록 피부조직과 표피 두께, 진피망의 촘촘함을 유지하는 젊은 단백질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단순히 비교하면 'miRs'가 늘어날수록 얼굴의 형태가 탄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젊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miRs'를 조절할 수 있다면, 반대로 젊은 단백질이 더욱 활발하게 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샤넬은 특정 'miRs'를 조절하는 효능을 지닌 활성 성분을 개발해 피부의 자연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젊은 단백질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인 '르 리프트'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샤넬이 노화를 유발하는 'miRs'를 조절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독특한 식물인 에둘리스(Edulis). 지금까지 화장품 원료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에둘리스는 꽃을 피우는 대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집중해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낸다. 에둘리스의 항산화 성분을 최고치로 끌어내기 위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적이 없는 독특한 추출 과정을 통해 50배 더 농축된 순수 추출액을 얻어내, 3.5DA라는 샤넬만의 특별한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을 완성한 것이다. 3.5DA 활성 성분은 앞서 이야기한 'miRs'를 조절해 매끄러운 피부조직의 필수 요소인 젊은 단백질 생성을 촉진한다. 젊은 단백질이 피부 속에서 활발하게 생성되면 단순히 피부 탄력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모공이 개선되고 주름이 완화되며 피맛결이 매끈해진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개선되면 당연히 얼굴 윤곽선 역시 살아나는데, 단 1개의 크림으로 모든 노화의 징후를 케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고안한 것이 바로 샤넬의 '르 리프트'인 것이다.

두 가지 텍스처의 예술성

샤넬은 텍스처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르 리프트' 역시 화장품업계 최초로 카노 교수가 개발한 이론인 'KANO' 방법론을 적용했다. 주로 자동차업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32가지 감각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자체 설문지를 통해 9백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노화 방지 관련 케어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이렇듯 최상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감각적인 기준을 연구해 '르 리프트'를 개발했기에, 같은 효능을 지닌 특별한 두 가지 텍스처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먼저 부드럽고 편안하며 크리미하게 녹는 듯한 '르 리프트 크림'은 평소 깔끔하고 쉽게 흡수되는 질감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제격이다. 질감이 부드러운 푸딩 같은 이 크림은 샤넬 화장품 텍스처가 지닌 매력의 정석과도 같은 제품으로, 일반적인 안티에이징 크림보다 훨씬 신뜻한 느낌이다. 보다 섬세하게 감싸주는 벨벳 같은 풍부한 텍스처를 원한다면 '르 리프트 크림 리치'를 선택하면 된다. 리치하지만 끈적임이 없고, 향기는 상쾌하다. 두 가지 텍스처 모두 바르는 행위 자체에도 여성미를 담은 브랜드의 가치가 느껴질 정도로 세심하게 완성되었다. 샤넬은 언제나 그렇듯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상상 그 이상의 투자를 통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꾸준히 품격이 느껴지는 확실한 콘셉트의 제품만을 선보인 샤넬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크림 '르 리프트'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확실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많은 여성을 만족시킬 것이다. 각 50g 19만5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배미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킨케어 브랜드

'세포라 No.1 브랜드', '오프라 윈프리가 뽑은 최고의 제품'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며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스킨케어 브랜드가 있다. 바로 작년에 한국에 론칭한 필로소피다. 한국에 론칭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17년 동안 그 입지를 탄탄히 다져온 미국 국민 브랜드. 사실 국내 론칭 전부터 해외에 나가기엔 욕심 하나 없는 브랜드로 간주되는가 하면, 각종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톱 셀러 자리를 지킬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 당시 필로소피를 쓰는 것은 뷰티 트렌드를 앞서가는, 섹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으니 많은 이들이 한국 론칭을 기다린 것은 당연지사. 특히 오프라 윈프리가 극찬한 수분 크림인 '호프 인 어 자와 홀 케어 필링 신드롬'을 일으킨 마이크로 달라버리 필은 필로소피를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대표 제품이다. 필로소피는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30년간 일해온 크리스티나 칼라노에 의해 탄생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진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따뜻한 감성을 담은 것이 브랜드의 신념. '호프(hope)', '그race(Grace)', '조이(joy)' 등 소문자로 된 독특한 제품 네이밍만 봐도 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삶에 대한 영감까지 전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철학이 엿보인다.

피부과 전문가가 인정한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

피부 전문가가 탄생시킨 브랜드답게 혁신적인 기술과 인정한 성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스킨케어 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필로소피의 강점이다. 대표적으로 안티에이징 라인인 '미라클 워커'를 꼽을 수 있는데, 필로소피는 올 10월 기존의 라인에 추가로 세 가지 안티에이징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비로소 브랜드를 대표하는 미라클 워커 안티에이징 컬렉션을 완성했다. 미라클 워커는 특히 브랜드의 첨단 기술을 강조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제품 라인. 특히 '1단계 주름 케어와 2단계 항산화 관리'라는 균형 잡힌 2-스텝 안티에이징 케어법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방식이다. 앞서 필로소피는 3백 명의 여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여성들이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29%에 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필로소피의 지문위임인 푸린피부과 김연진 원장은 "주름과 탄력 개선에만 편중된 불균형한 안티에이징 케어가 문제다.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줄 주름 개선과 항산화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필로소피가 제안하는 2단계 노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간을 되돌리는 2-스텝 안티에이징

미라클 워커 1단계는 패드 형태의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패드 앤 솔루션이다. 필로소피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이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과 전문의 처방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에 주름, 고기능성 레티노이드 hpr'을 제품에 담는데 성공했다. 비타민 A의 일종인 레티놀은 피부 표피의 증식을 막아 주름은 물론 잡티, 트라클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 패드 앤 솔루션에 함유한 hpr은 레티노이드의 안티에이징 효능은 그대로 피부에 전달하고, 자극은 최소화해 안정성을 높인 분자 구조다. 이는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을 개선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주는 것이 특징. 이 성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신선한 상태의 레티노이드 용액을 패드에 직접 부어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용액을 부으면 60초의 패드 각각에 레티노이드 1일 권장량만큼 스며들어 전문 지식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매일 저녁 1매씩 가볍게 얼굴을 닦아내듯 사용할 것. 패드로 주름 관리를 끝냈다면 2단계의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이저 또는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로션으로 앞서 사용한 레티노이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피부 세포 재생력을 높이는 레스베라트롤과 글루타티온을 함유해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다. 손과 데콜레 피부의 노화까지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고기능성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핸드, 넥 앤 데콜레 크림을 발라 미사해봐라. 얼굴은 물론 보디 피부까지 매끈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문의 080-850-0708 에디터 권유진

a miracle of Skincare

가장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란, 안전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가격이 합리적인 안티에이징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어느 한 곳에 편중된 관리가 아닌 피부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는 방식의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필로소피가 제안하는 2단계 미라클 안티에이징 시스템은 홈 케어만으로도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을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 대로)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이저 60ml 8만5천원,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로션 50ml 7만원, 미라클 워커 미라클라스 안티에이징 레티노이드 패드 앤 솔루션 60패드, 60ml 10만5천원 모두 필로소피.

the ultimate Rose

지금까지도 최고가 화장품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끌레드뽀 보페의 럭셔리 라인 시나끄티프에서 새로운 향수를 선보인다. 브랜드 최초의 향수이자 VIP라면 모두가 기다려왔을 만한 향수다. 궁극의 장미 향기를 담은, 로즈 시나끄티프 향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최고의 장미, 최고의 향기로 탄생하다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들은 기꺼이 최고로 인정하는 끌레드뽀 보페에서 초고가 라인인 시나끄티프를 론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오랜 장미 정신으로 지켜온 브랜드의 노하우와 제품력으로 드라마틱하고도 품격 있는 화장품을 완성했기에 까다로운 VVIP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나끄티프 라인의 우아한 패키지, 뛰어난 제품력과 함께 많은 이들이 높이 평가한 부분은 블루 로즈를 사용한 장미 향.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시나끄티프 라인의 클렌저 비누인 사본을 꾸준히 구매한다는 고객들이 생겼을 정도로 매력적인 이 향기는 올해 완벽한 시나끄티프 라인의 새로운 향수로 완성되었다. 최고만을 고집하기에 좀처럼 신제품을 쉽게 선보이지 않는, 어쩌면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끌레드뽀 보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즈 시나끄티프(Rose Synactif)는 패키지부터 향기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세계 3대 향료 회사 중 하나인 피미니시를 대표하는 톱 퍼퓸어 알베르토 모리아스와 합작해 향수를 만들었는데, 모리아스는 2003년 최고의 조향사로 선정되어 코티싱(Coty Prize)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프래그런스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FIFIF 상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춘 향기 크리에이터다. 패키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콘셉트를 위해 에르메스 디자이너네 스킵프와 테이블웨어를 디자인하는 브누아 에머리(Benoit Emery), 에르메스의 백과 렉서스 콘셉트 디자인을 담당 한 바 있는 산디 디자이너네 데미언 오실리반(Damian O'Sullivan)까지 합류하며 최정에 뻗어만 있었으니, 최고의 향수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부 스스로가 뽀아내는 아름다운 향기, 로즈 시나끄티프

끌레드뽀 보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치를 향수에도 그대로 담았다. 로즈 시나끄티프는 과시하거나 과장된 향기가 아닌, 마치 피부 스스로가 뽀아내는 향기인 듯 느껴지는 새로운 방식의 향수다. 향기의 핵심 원료인 장미를 선별하는 방법은 더없이 특별하다.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종묘 회사의 장미를 선별했는데, 조향사의 분석에 따라 향기를 세분화해 품종별로 정성껏 관리하는 고품종 장미만 선별하는 것. 다양한 장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블루 로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미지와 함께 특별한 향기를 겸비한 장미로 유명하다. 톱 노트에는 피부 속부터 정화되는 듯한 맑은 느낌을 콘셉트로 한 비아리츠, 하이페리움, 주니퍼 베리의 상쾌함을 담았고 미들 노트는 송고한 피부의 빛을 형성화해 투명한 향기와 대미되는 깊은 향기의 조화를 표현했는데, 은근한 재스민 향기도 느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노트와 라스트 노트에는 완벽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오리지널 퓨어 머스크와 화이트 우드가 매끄럽게 피부와 하나가 되어 피부 자체에서 뽀아져 나오는 향기처럼 여겨지도록 고안했다. 끌레드뽀 보페에서 정성을 다해 선보인 로즈 시나끄티프 향수는 이미 장미 재배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경합하는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인 마기텔 국제 장미 콩쿠르에서 2관왕을 수상했다. 훌륭한 향기의 구성과 외관의 아름다움이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모두 인정받은 것이다. 단순한 향기를 넘어서 특별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향수를 찾던 여성이라면 꼭 한번 로즈 시나끄티프의 아름다운 향기를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50ml 38만원, 문의 02-3438-6032 에디터 배미진

촬영: 박건우



One Fine healing day

순식물 천연 성분과 재활용 용기, 환경 보존 캠페인 등 자연과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코즈메틱 브랜드 아베다. 맑고 건강한 내추럴 뷰티를 추구하는 아베다는 이번 시즌 맨 케어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아우르는 새로운 얼굴로 배우 이진욱을 선정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잣나무, 자연의 푸름이 느껴지는 맑은 공기, 자연 속에서의 세이빙... 건강하면서도 꾸밈없이 소탈한 멋이 매력적인 그가 자연과 아베다를 벗 삼아 여행을 떠났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도심 속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숲 속의 평온함에 매료된 이진욱과 자연을 사랑하는 아베다가 함께한 힐링 스토리를 들여다보자.

진행 뷰티팀 사진: 이현호/ART HUB, TE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은수, 헤어: 이현정/아베다, 메이크업: 이현아, 스타일링: 리스, 용문영, 김소, 정소, 안나비, 불발, 서용



자연을 사랑하는 아베다와 이진욱의 완벽한 조우

론칭한 이후 3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 친환경 뷰티 브랜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아베다. 고대 아유르베다의 지식과 원리에 영감을 받아 천연 식물 성분의 헤어·스킨·보디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별화된 리추얼 (ritual)을 경험케 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운다. 순식물 천연 아로마와 꽃, 식물 추출물 등 오로지 자연에서 얻은 원료만 고집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도구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코즈메틱 브랜드.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 자연과 지구 전체에 도움이 되는 환경 보존 캠페인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의 변함없는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 아베다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콘셉트에 맞게 배우 이진욱을 새로운 얼굴로 선정했다. 자유로우면서도 꾸밈없이 소탈한 멋이 매력적인 그는 아베다가 추구하는 내추럴 뷰티와 더없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휴식이 절실한 남성을 위해 아베다와 이진욱은 아난티 클럽 서울의 숲 속으로 떠났다. 이곳에서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잣나무, 자연의 푸름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공기와 아베다의 완벽한 힐링 타임이 시작되었다. "도심 속에서 늘 함께하는 아베다는 자연 속에서도 나를 치유해주는 완벽한 파트너"라고 말하는 그는 이번 여행에 스트레스 픽스 라인과 헤어 케어 제품에 이르기까지 아베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동행했다. 먼저 부드러운 텍스처와 촉촉한 보습력을 자랑하는 '스트레스 픽스 바디로션과 최상의 셀프 홈 스킵을 선사하는 '스트레스 픽스 소킹 솔트', 달콤한 시트러스 향의 베르가못 오일로 구성된 '스트레스 픽스' 3종 콤보로 지친 몸과 마음에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주력한 후 '아베다 맨 퓨어-포먼스'로 예민한 두피와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표피가 두껍고 피지 분비가 왕성한 남성 피부의 특성을 반영한 '아베다 맨 퓨어-포먼스' 라인에는 남성만을 위한 독점 성분인 피토 액티브 블렌드와 유기농 천연 아로마를 담아 지친 남성의 피부를 다독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면도 시 자극을 최소화하는 '맨 퓨어-포먼스 웨이브 크림'부터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과 보습의 이중 효과를 주는 '맨 퓨어-포먼스 듀얼 액션 애프터 웨이브 로션', 고기능성 헤어 라인 '맨 퓨어-포먼스 샴푸&맨 퓨어-포먼스 컨디셔너', 모발이 뭉치지 않아 한 올 한 올 세련된 스타일로 연출해주는 '클레이 왁스 맨 퓨어-포먼스 그루밍 클레이', 모발과 두피에 사용하는 다기능 에센셜 오일 '맨 퓨어-포먼스 컴포지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여 완벽한 뷰티 케어가 가능하다. 맨 케어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아베다의 제품과 힐링 기어로 떠오른 이진욱의 완벽한 호흡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문의 02-3440-2905 에디터: 아베다



the wild sense of Luxury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영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땅, 아프리카. 그곳의 광활한 대지에는 인간의 문명을 비롯하여 모든 것의 다양성이 깃들여져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땅이 내리는 축복은 위험이라는 치명적인 가시를 늘 품고 있었다. 도시화와 밀렵을 통한 자연 파괴, 질병과 동물들로 부터의 공격 등 인간이 오롯이 누릴 수 있는 평온은 어찌 보면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싱기타(Singita)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12곳의 로지(Lodge, 거처)와 캠프는 기적의 장소로 칭송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 특별한 장소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그리고 짐바브웨에 넓게 퍼져 있으며 모두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한 계획,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극진한 환대와 서비스, 그리고 그곳의 토착민들에게 제공하는 희망적인 삶의 터전. 이곳은 부자들이 그저 호사스러움을 누리기 위해 돈을 써대는 곳도 아니고, 새로운 스타일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을 뽐내기 위한 단순한 리조트 사업장도 아니며 야생동물을 보기 위해 밀렵으로 떠나는 사파리 관광 여행 상품도 터럭 하나 없다. 물론 최고의 스타일과 디자인, 그리고 대자연의 감동하기 위해 전 세계의 부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리고 싱기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법이 없다.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싱기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으로 야생동물들과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보호하는 운동을 펼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토착민들에게 최고의 요리 교육을 시킨 후 공정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아니라 아프리카의 동물들과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을 싱기타 여행 프로그램에 접목해 사파리와 부시맨 워킹, 승마 등 다양한 체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한다. 싱기타의 비전에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축복받은 대자연의 조화롭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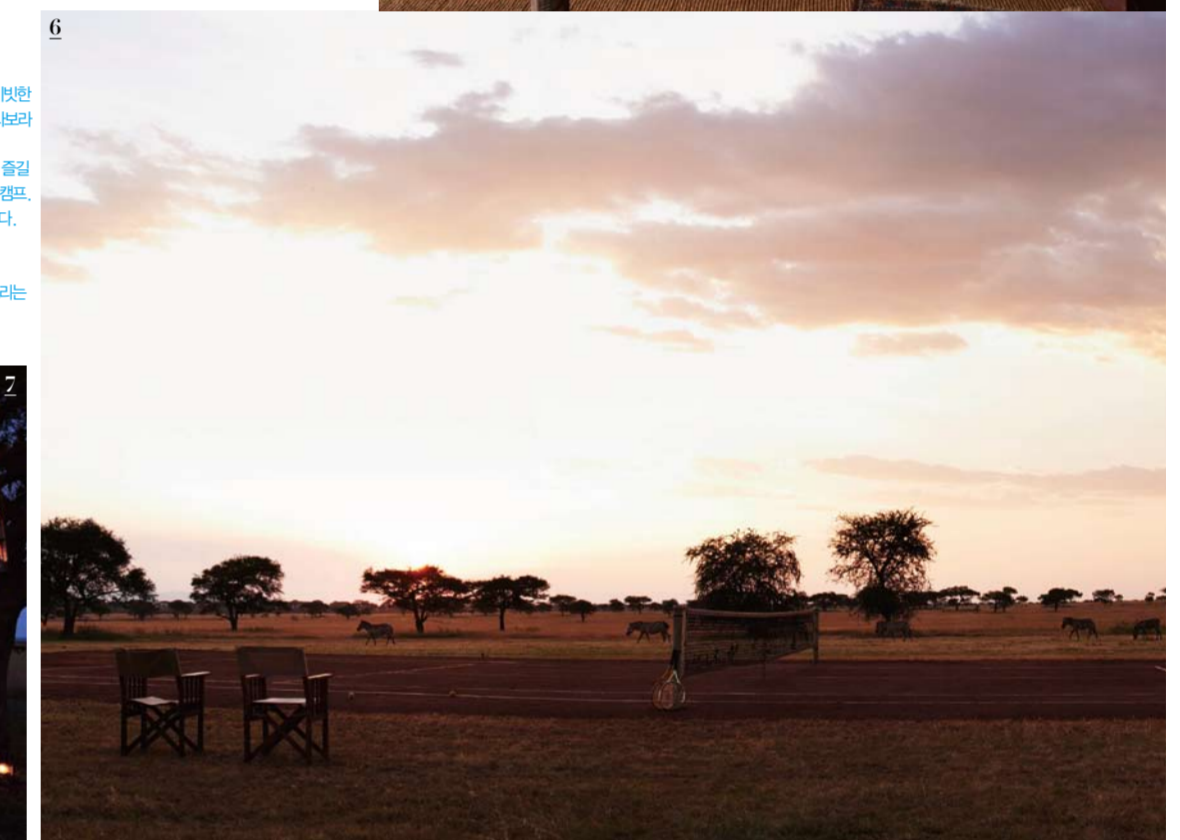
기타, 대자연의 우아함과 포하다

싱기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비 샌드(Sabi Sand)의 에보니 로지(Ebony Lodge)에서 탄생했다. 에보니 로지는 거대한 나무들과 샌드 강이 어우러진 장소에 위치하며 유럽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모티브로 한 현대적 디자인과 아프리카의 대담한 자연주의가 만나 손님들을 맞이한다. 유럽의 클래식과 모던, 빈티지, 그리고 색상과 텍스처가 다양한 고급 소재들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한다. 다른 로지들 또한 색다른 감각과 다양한 성격의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야생의 자연과 더욱 밀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볼더스 로지(Boulders Lodge), 빌라 스타일의 아름다운 정원과 자연을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는 캐슬톤(Castleton), 그리고 르봄보 로지(Lebombo Lodge)에서는 르봄보

호사스러움의 끝은 무엇일까? 아마도 안락함 속에서 야생의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경이로운 대자연의 축복과 거대함을 몸속 가득 느끼며 최고의 안락함을 동시에 누린다. 그것은 아마도 천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여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실현을 콘셉트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야생의 자연에 대한 선입견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린 장소가 있다. 그곳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이상 낙원일 것이다.



1 탄자니아의 싱기타 사보라 텐트 캠프 앞에 펼쳐진 풍경. 현실이 아니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2, 3 남아공의 싱기타 볼더스 로지는 평화롭고 조용한 사색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아프리카의 에스닉하고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만들곤 한다. 4 볼더스 로지의 프라이빗한 로지, 개인용 물장과 욕조가 아늑하게 설치되어 최상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5 탄자니아 사보라 캠프는 동물들의 사자처럼 따라 이동하는 모바일 텐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내부는 럭셔리한 에스닉 스타일로 꾸며져 최상의 안락함과 최고의 디자인 그 이상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6 탄자니아의 광활한 대지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캠프 콘셉트, 사보라 텐트 캠프. 해질 무렵이면 미묘한 색감의 아름다운 노을이 아프리카의 디자인을 더욱 황홀하게 물들인다. 7 야생 동물들의 소리와 태고의 바람을 느끼고 탄자니아의 초원을 테라스 상아 자색식사를 할 수 있는 사보라 캠프, 나뭇가지마다 걸려둔 램프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름답다. 최고 세프의 요리를 최고 환경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즐기는 최고급 요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상상적이다. 8 남아공의 볼더스 로지 침실. 편안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아프리카 초원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토착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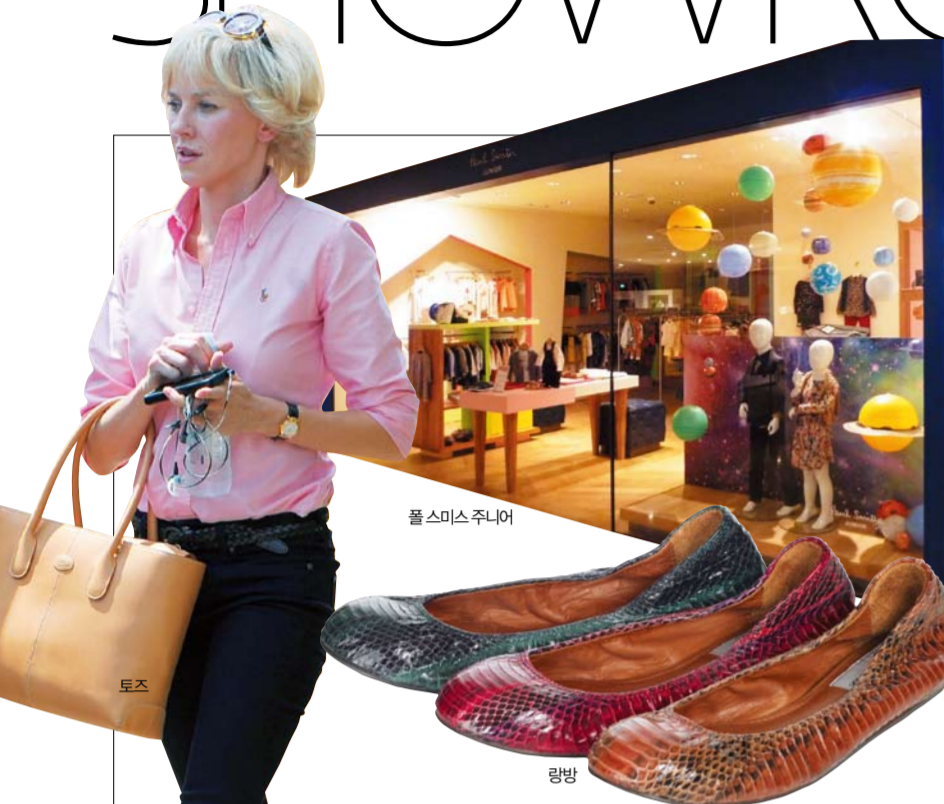
산맥을 끼고 크루거 국립공원과 인접해 제대로 된 사파리를 체험할 수 있다.

탄자니아의 로지들은 주로 강가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다. 이곳은 우아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동식 텐트(The Moving Tent)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진정한 아프리카 스타일의 고급스러움과 모험가들이 머물듯한 빈티지 스타일의 실내장식은 싱기타가 자랑하는 아이코닉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투숙객들은 철저하게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광활한 자연 안에서 사색할 수 있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안락한 침대, 욕조를 제공받는다. 이들 중 세레벵게티의 모바일 텐트는 2011년에 탄생한 곳으로, 신비로운 아프리카 자연에서의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 모바일 텐트는 싱기타의 넓은 대지 어디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 투숙객들은 지역민들의 보호와 안내를 받는다. 최상의 안락함을 보장받지만 정해진 틀에 따르지 않고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짐바브웨에서는 말리앙그웨(Maliangwe) 지역, 야생의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빛깔의 새들과 멸종 위기의 독수리, 표범에 이르기까지 싱기타와 고나레주(Gonarezhou)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동물들의 행복한 삶을 목격할 수 있다. 또 1백 곳이 넘는 2천 년 된 바위 계곡들과 거꾸로 자라는 바오밥 나무, 그리고 아름답기로 가득찬 울창한 마법의 숲을 거닐 수도 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땅 아프리카. 생명의 근원지라 불리는 그곳에서 싱기타의 자연은 거대한 지구와 한없이 작은 자기 자신의 색다른 조우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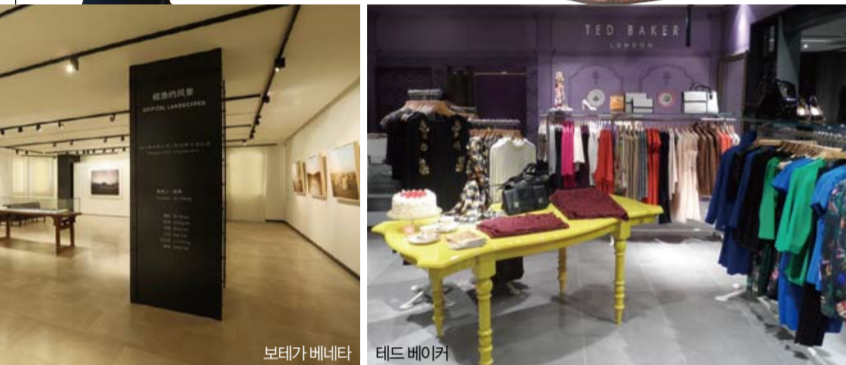
www.singita.com **싱기타** 자연경관 사진제공 Singita



SHOWROOM



폴스미스 주니어



보테가 베네타



21 드레이



아르마니 콜레지오니

르베이지

마쥬

펜디 2013 F/W 다이아몬드 컬렉션 펜디는 2013 F/W 시즌, 브랜드의 상징적인 유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이아몬드 슈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독특한 워딩 디자인이 특징인 다이아몬드 컬렉션은 발등을 덮는 과장된 커브형 실루엣부터 블랙&화이트에 오렌지 믹스 퍼트리밍으로 강렬한 컬러 블록을 연출한 디자인까지 대담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문의 02-2056-9023

버버리 빅 크리시 2013 F/W 버버리 프로세서 여성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크리시 백은 1960년대를 풍미한 보헤미언의 아이코닉한 상징인 크리시인 칼라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하트 프린트와 부드러운 손감을 사용한 토트백 스타일로, 영국의 클래식한 아우터웨어를 연상시키는 드로스트링 어레이가 특징이다. 탈착 가능한 어캐인 장갑과 크로스 백이나 클라켓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2-3485-6583

토즈 영화 (다이애나) 참여 영화 (다이애나)에서 고다이애나 왕세자비 역을 맡은 나오미 와츠는 토즈의 아이코닉한 그래픽과 고디노 슈즈를 착용하고 등장한다. 토즈는 지난 3월, 열대야 출판사에서 발간한 다이애나의 삶을 담은 책 (타이틀: 다이애나) 사진집을 후원했으며, 출판사는 판매 금액의 일부를 소아암 환자를 돕는 클리닉 사티트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으로 밝혀 화제를 모았다. 문의 02-3448-8105

폴스미스 주니어 대구 대백백라자 오픈 폴스미스 주니어가 지난 9월 27일, 대구 대백백라자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이는 지난 4월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에 국내 첫 단독 매장을 오픈한 이후 두 번째 단독 매장으로, 대구 지역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오픈 기념으로 모든 구매 고객과 구매 금액별 고객에게 특별한 시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과 함께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6957-5815

랑방 발레리나 플랫 슈즈 랑방에서 2013 F/W 시즌을 맞아 발레리나 플랫 슈즈를 새롭게 선보인다. 최고급 양귀족 소재에 발등을 고무줄 차폐해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선사하며, 피아톤, 페이튼, 사틴 등 다양한 소재와 진주, 크리스탈과 같은 주얼 장식으로도 선보인다. 문의 02-3438-6186

보테가 베네타 상하이 이평 갤러리아 부티크 전시회 보테가 베네타는 상하이 이평 갤러리아 매장에서 격려하는 근대 중국 풍경을 주제로 위기의 풍경들이라는 제목 아래 현대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보테가 베네타는 이 전시를 통해 유명한 인재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보람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문의 02-3438-7681

테드 베이커 4N5 여성 매장 오픈 테드 베이커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4N5에 국내 첫 여성 매장을 론칭했다. 4N5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전개하는 컨템퍼러리 패션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이다. 문의 02-310-5112



펜디

버버리

21 드레이 청담동 매장 오픈 21 드레이가 청담동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론칭 프레젠테이션에는 고소영을 비롯해 수많은 셀러브리티와 프레스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드레이의 컬렉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 2층부터 VIP룸과 이벤트 등을 열도록 문화 공간으로 만든 4층까지 단층 스토어를 넘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감성을 충족시켜줄 것이다. 문의 02-511-2190

아르마니 콜레지오니 MTM 컬렉션 아르마니 콜레지오니의 MTM 맞춤 슈즈는 매장 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숙련된 테일러의 일대일 피팅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각자가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의 옷 모양과 소재, 인강, 단추는 물론 주머니의 형태나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MTM 재킷에는 자신의 이름을 리벨에 새길 수 있다. 완성까지는 5~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문의 02-556-4551

르베이지 2013 F/W 하트 포 아이 캠페인 르베이지가 2013 F/W 하트 포 아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2009년 론칭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외 여성 오피스나인 리더와 명사들의 광고 참여를 통한 사회 참여 후원 캠페인이다. 이번 시즌엔 뷰티·패션 업계의 뉴욕 명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크리스탈을 조합해 캠페인의 상징인 하트를 형상화한 브로치는 가볍고 매끄러운 호미가 소재로 제작했으며, 네이비, 브라운, 그린 등 톤 다룬 3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3438-6212

마쥬 글램 락 리더 재킷 프랑스 컨템퍼러리 브랜드 마쥬는 2013 F/W 컬렉션에 록 스타일을 기미한 '글램 락 리더 재킷'을 선보인다. 보이 프렌드 핏의 여유 있는 실루엣이 특징이며, 벨트 디테일과 소매의 지퍼 장식으로 핑키한 느낌을 강조했다. 페미닌한 원피스와 함께 매치하는 것이 이번 시즌 마쥬에서 제안하는 스타일링 팁이다. 문의 02-3438-9145

미우미우 우먼스 테일 미우미우 우먼스 테일은 멜로와 초현실주의, 뉴이스트의 요소를 각각의 감각 관점으로 풀어낸 기하학으로 여성적 코드와 패션을 함께 다루고 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쇼트 필름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여성 감독이 그동안의 독특한 시각에서 바라본 일상을 표현했으며,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6개의 쇼트 필름을 비롯해, 비하인드 컷과 인터뷰 등은 미우미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18-5341

무스너를 론칭 이벤트 캐주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스너들이 청담동 송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론칭 이벤트를 진행했다. 품질 높은 그레이 더 다운 충전 재킷을 사용하며, 극지방에서 사냥하는 블루 폭스 피아 실버 폭스 피아 추위를 막아준다. 특히 디온 브랜드보다 긴 소매와 타이탄 실루엣으로 스타일리시한 패딩 룩을 완성해준다. 문의 02-551-7038



미우미우

무스너



에스티 로더



설화수



쥬시 꾸뛰르

발망

필로소피



타이틀리스트

타이틀리스트 2013 F/W 신제품 타이틀리스트에서 2013 F/W 신제품을 출시한다. 골프 어패럴의 기본인 퍼포먼스를 강화하기 위해 동체 패튼, 테크 니트 등 새로운 기능과 콘셉트를 다수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부터 선보인 타이틀리스트 어패럴은 소재부터 디자인, 패턴에 이르기까지 투어 선수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골프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컬러 스토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스토이 사이즈 라인으로 구성되어 골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02-3014-3800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57 코-엑스업 크로노그라프 1957년 탄생한 오메가의 전설적인 스피드마스터를 기념하기 위해 '57 코-엑스업 크로노그라프'를 새롭게 출시한다. 클래식한 스타일리스 스틸과 골드 의 마스터 워치이며, 오메가 최초의 인하우스 크로노그라프인 '코-엑스업 칼리버 9300/9301'을 탑재했다. 6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자랑한다. 문의 02-3149-9573

샤넬 워치 J12 문페이스 샤넬 워치 'J12 문페이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작은 청을 통해 달의 주기를 표현하는 기존의 문페이스 워치와는 달리 어벤추린(aventurine) 세공법을 가진 디스크 위에 달의 주기가 디스크를 덮는다. 다이아몬드 또는 하이테크 세라믹을 세팅한 베젤은 한층 슬림해졌으며, 기호에 따른 다이얼을 적용했다. 문의 02-3442-0362

카르띠에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 카르띠에의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파리 누벨바그 컬렉션은 파리를 연상시키는 7가지 무드로 완성되었다. 1960년대 이후 다양한 모티프로 등장한 카르띠에 링은 화려한 컬러 스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스톤의 사이즈와 컬러를 극대화하기 위해 카보숩 세팅 기법으로 완성되었다. 문의 1566-7277



에스티 로더 컬렉션 리퍼 출시 기념 행사 에스티 로더는 청담동 비온드 뮤지엄에서 신제품 컬렉션 리퍼 출시를 기념해 'Beauty of Night'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마련된 브랜드 체어 존에는 1세대 컬렉션부터 6세대 컬렉션까지 32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전시 공간이 마련되었다. 신제품 컬렉션은 방 안이후아지는 피부 개선 메커니즘에 관한 오랜 연구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크로노락스CB™ 테크놀로지를 특징으로 한다. 문의 02-3440-2772

샤넬 블루 드 샤넬 샤넬의 남성을 상징하는 향수 '블루 드 샤넬'이 최초로 150ml 달릭스 사이즈를 한정 출시한다. 모사리 부분을 커튼한 보틀은 샤넬 No.5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며 자석 차폐된 뚜껑은 영롱한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열린다. 강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표현하는 우디-아로마 계열의 향수로 시트러스 향, 파피페르나산, 무 노트 등이 조화를 연출시킨다. 문의 080-332-2700

설화수 2013 <문화문화전> 개최 설화수가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필판동 갤러리 인에서 <문화문화전> '활기 사대를 관동하'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문화문화전>에서는 활을 주제로 한국 전통 활과 화살, 화살통, 활자 그리고는 독특한 특성과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전통·현대 작가들의 뛰어난 기술과 숨겨진 노력, 열정의 사활들을 담

아낸 이번 전시는 궁장 권우석, 김윤경, 서양 유영기, 유세현, 전통장 김동학 등 5인의 전통 장인과 허준, 구병준, 박찬우, 내인리스(Nameless), 대원(大元) 필로소피 미리를 워커 필로소피가 기존 인테이징 라인인 미리를 워커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3가지 스킨케어 미리를 워커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모스 차려이저, 미리를 워커 오일미리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로션, 미리를 워커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핸드드림&대글레 크림을 선보인다. 모든 제품이 스킨케어 인테이징 제품 개선 기능성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믿음직스럽다. 문의 080-850-0708

등 5인의 현대 작가 등 총 10인의 작가들이 참여한 다. 문의 02-788-7312

쥬시 꾸뛰르 비버리쥬시 누아 쥬시 꾸뛰르의 베스트셀링 향수인 비버리쥬시 누아를 과감하고 화려한 향을 더한 비버리쥬시 누아가 재탄생했다. 와일드 베리, 스파클링 만다린, 재스민 샬백, 크리미 바닐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려한 꽃다발을 연상시킨다. 블랙 실크 리본과 잠 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443-1805

엘리사 오드 퍼퓸 인텐스 출시 엘리사 향수가 론칭 2주년을 맞아 비즈 장식의 이브닝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엘리사 오드 퍼퓸 인텐스를 선보인다. 세련된 관능미를 느낄 수 있는 중독성 강한 오리엔탈 플로럴 계열의 향수로, 오렌지 불로섬이 향의 시작을 맡으며, 파츨리과 앰버로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롯데백화점 퍼퓸 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43-7186

발망 무수 발망 1964년에 선보인 발망의 '무수 발망'은 시트러스 아로마틱 향초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상쾌한 스파이스로 시작하는 톱 노트로 시작해 머스키, 앰버, 시더우드와 베이스 노트로 마무리되는 깊고 웅장한 향이 일품이다. 밝은 옐로 컬러의 보틀과 블랙 컬러 캡의 대비가 매력적이다. 문의 080-800-8809

SK-II 가을 세트 기획전 SK-II가 가을을 맞아 특별한 세트 기획전을 선보인다. 페이스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과 에센스 등을 샘플로 담은 '스페이스워크림 100g, 50g 세트', 'SK-II 레드 에센스 세트'로 구성했다. 10월 3일부터 20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문의 080-023-3333

아베다 핑크 리본 핸드 릴리프 아베다는 2013년 유망한 의식 향수 캠페인의 핑크 에디션 제품으로 '핑크 리본 핸드 릴리프'를 선보인다. 기존의 핸드 릴리프와 비교했을 때 용량은 19% 증가했고, 아베다의 시그니처 아로마인 '로즈제리'인 로즈아로마를 더한 한정 제품이다. 아베다는 핑크 리본 핸드 릴리프 판매를 통해 올해 30만 달러의 기부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의 치료법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문의 02-3440-2905

필로소피 미리를 워커 필로소피가 기존 인테이징 라인인 미리를 워커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3가지 스킨케어 미리를 워커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모스 차려이저, 미리를 워커 오일미리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로션, 미리를 워커 미리클라스 인테이징 핸드드림&대글레 크림을 선보인다. 모든 제품이 스킨케어 인테이징 제품 개선 기능성 인증을 획득했을 만큼 믿음직스럽다. 문의 080-850-0708



샤넬 워치

오메가

해밀턴

카르띠에



J 12
MOONPHASE
CHANEL

Watch in high tech ceramic. Moonphase complication with aventurine counter.
Self winding mechanical movement. 42 hour power reserve.